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

2008. 4

국제협력담당관실

〈제 목 차 례〉

I. 참가개요	2
II. 주요활동 요약	2
III. 세부일정	3
IV. 세부 활동내용	4
1. 유엔대표부대사 예방	4
2.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포럼	4
3. 유엔통계위원회 공식의제 토의내용	6
① 유엔통계위원회 회의일정	6
② 고용통계[E/CN.3/2008/2]	7
③ 교육통계[E/CN.3/2008/3]	11
④ ICP[E/CN.3/2008/4]	14
⑤ 국민계정[E/CN.3/2008/5]	16
⑥ 경제통합통계[E/CN.3/2008/6]	19
⑦ 관광통계[E/CN.3/2008/7]	25
⑧ 유통교역통계[E/CN.3/2008/8]	28
⑨ 유통교역통계[E/CN.3/2008/9]	33
⑩ 유통교역통계[E/CN.3/2008/10]	37
⑪ 유통교역통계[E/CN.3/2008/11]	40
⑫ UNSD의 통계자료수집 및 배부[E/CN.3/2008/12]	43
⑬ 자료 및 메타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공개기준	47
⑭ 아프리카 지역통계발전에 대한 아프리카경제위원회 보고서	52
⑮ 보건통계[E/CN.3/2008/15]	58
⑯ 개발지표 협의내용	58
⑰ 제40차 위원회 의제 및 일정 협의내용	59
4. 제3차 세계포럼 개최관련 OECD와 실무협의	60
5. OECD의장단 회의 주요내용	61
6. 글로벌프로젝트 파트너기관회의 주요내용	68
7. 유엔과의 공동연구관련 협의	70
8. 기타 국제협력활동	71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

I. 참가개요

- 기 간 : 2008. 2. 24 ~ 3. 2(유엔통계위원회:2.25~2.29)
 - 장 소 : 뉴욕 유엔본부
 - 참 석 : 우리나라 대표단 총9명
 - 통계청(6) : 김해수 차장, 정규남 통계정책국장, 안정임 국제통계협력과장, 한성호 경제통계실장, 황명진 사회통계실장, 홍성욱 국제통계협력과 주무관
 - 한국은행(1) : 정영택 통계개발팀장
 - 한국교육개발연구원(2) : 임후남 통계센터 취업통계팀장, 박종효 국제분석팀장
- ※ 전 세계 130여 국가, 20개 국제기구 대표참가

(의장 남아프리카공화국 Mr. Pali Lehohla, 부의장 핀란드 Ms. Heli Jeskanen-Sundsttom, 콜롬비아 Hector Maldonado Gomez, 오만 Mr. Ali Bin Mahboob bin Hassan이 선출되었고, 보고자로 헝가리 Mr. Peter Pakli가 선출됨)

II. 주요활동 요약

- 대표단은 UN의 경제·사회분야 국제적 통계이슈 32개 의제별 협의에 참가하고, 당면과제 토의를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통계이슈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통계커뮤니티와의 공조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 현재 통계청이 유엔과 추진 중인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유엔통계처장(폴칭)과 2008년 공동연구 수행분야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참가하여 6월 정기통계위원회의 의제 등을 사전 협의하고, OECD통계처장(지오바니)등 실무자와 제3차 OECD 포럼에 관한 실무협의, 글로벌프젝트 파트너미팅 참가등 OECD통계위 위원국으로서의 활동과 3차 세계포럼 개최국으로서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관련 당사국 및 국제기구의 지지확보를 위한 활동수행
- 양자협력국 대표와의 개별접촉을 통해 2008년도 양자협력국과의 주요 협력 활동 등을 협의

III. 참가일정

구 분		시 간 대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일차	2.24(일)	10:50	뉴욕도착	JFK	
2일차	2.25(월)	11:00 - 12:00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Conf. RM5	OECD세계포럼 초청건
		12:00 - 12:30	유엔대표부대사 예방	유엔대표부	
		15:00 - 18:00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포럼	Conf. RM3	
3일차	2.26(화)	10:00 - 13:00	오전세션(고용, 교육통계등)	Conf. RM3	
		13:30 - 14:30	한국대표단 전체오찬		
		15:00 - 18:00	오후세션(국민계정, 통합경제 등)	Conf. RM3	
		19:00 - 21:00	유엔대표부 공식만찬		
4일차	2.27(수)	10:00 - 13:00	오전세션(유통교역통계, 산업통계 등)	Conf. RM3	UN공동연구사업 건
		15:00 - 17:00	오후세션(인간개발통계 등)	Conf. RM3	
		18:00 - 19:00	유엔통계처장 면담	UNSD	
5일차	2.28(목)	10:00 - 11:00	오전세션(아프리카 통계개발 등)	Conf. RM3	아태지역 협력건 OECD통계위 위원국
		11:00 - 12:00	OECD 미팅	Lounge	
		12:00 - 13:00	SIAP소장 초청 오찬		
		14:30 - 18:00	OECD의장단 회의	UNSD	
6일차	2.29(금)	10:00 - 13:00	최종세션(보고, 40차의제 제안 등)	Conf. RM3	OECD세계포럼 관련
		13:00 - 16:30	글로벌프로젝트 협력기관회의	UNDP	
7일차	3.1 (토)	12:40	출발		
8일차	3.2 (일)	17:10	인천공항 도착		

IV. 세부 활동내용

1. 유엔대표부대사 예방

- 일 시 : 2008. 2. 25(월) 12:00 - 12:30
- 장 소 : 유엔대표부 대사실
- 주요내용
 - 한·미 FTA협상을 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통계를 인용하면 설득력이 커지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음
 - 통계청에서 매월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대표부에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제3차 OECD세계포럼을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해외 고위급인사의 참여가 필수적. 특히 OECD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참석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바, 대표부의 지원을 요청
 - 반 기문총장께서 포럼참석을 비중있게 검토하게 하기위해선 OECD사무총장이 직접 반 총장께 포럼참석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만, 사적으로 반 총장을 만날 때 세계포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반 총장께서 세계포럼에 대해 인지토록 하겠음

2.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포럼

- 일 시 : 2008. 2. 25(월) 15:00 - 18:00
- 장 소 : 유엔빌딩 3회의실
- 참 석
 - 좌장 : 핀란드 통계청장(Hell Jeskanen-Sundstrom)
 - 패널 : Kenneth Prewitt(콜롬비아대 교수), Kerve Carre(유럽연합통계처장), Howard Babriel(남아프리카 통계자문위원회 의장), Swaraj Kumar Nath(인도통계청장), Rdiha Ferchieu(튀니지아 통계청장), Jan Fisher(체코통계청장)
- 주 제 : 통계의 적절성, 정직성 및 혁신성 :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 주요내용
 - 통계의 적절성 : 통계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낸 통계가 적절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냄

- 통계의 정직성 : 품질없이 통계의 정직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품질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 긴축예산시 국방, 교육, 보건 보다는 통계관련 예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 이때 모든 통계조사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수를 줄여갈 것인지를 결정. 따라서, 통계기관과 사용자간 건강한 관계를 수립,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계의 혁신성 : 혁신에 정치적 또한 재정적 측면이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타당하게 보임. 우리가 측정하는 인구분포, 경제활동, 가구조건 등은 몇 십년 전과 같지 않고, 십년 후의 모습과도 다를 것임. 구분에 따른 이슈, 표준화, 샘플링디자인 등은 항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임. 우리가 혁신을 변화하는 정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인구조건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인구관련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어려움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 따라서 행정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도전극복이 향후 트렌드라고 여겨짐. 북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자료에서 가치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있음

3. 유엔통계위원회 공식의제 토의내용

① 유엔통계위원회 회의일정

월일	구 분	관련문서 (E/CN.3)	주요내용	비고	
2.26 화	item1		의장단 선출	30'	
	item2	2008/1	의제 및 일정 채택		
	item3(a)	2008/2	고용통계		75'
	item3(b)	2008/3	교육통계		45'
	item3(c)	2008/33 2008/4	국제비교프로그램		75'
	item3(d)	2008/5	국민계정		60'
	item3(e)	2008/6	통합경제통계		45'
2.27 수	item3(f)	2008/7	관광통계	45'	
	item3(g)	2008/8	유통교역통계	45'	
	item3(h)	2008/9	산업통계	45'	
	item3(i)	2008/10	국제상품교역통계	45'	
	item3(j)	2008/11	인적자원개발통계	60'	
	item3(k)	2008/12	유엔통계처의 통계자료수집 및 배포	45'	
	item3(l)	2008/13	자료 및 메타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기준	45'	
2.28 목	item3(m)	2008/14	아프리카 지역통계개발	60'	
	item4(a)	2008/15	보건통계	120'	
	item4(b)	2008/16	인구 및 주택총조사		
	item4(c)	2008/17	사업체조사들에 관한 원탁회의		
	item4(d)	2008/18	국제상품교역통계		
	item4(e)	2008/19	국제서비스교역통계		
	item4(f)	2008/20	물가지수에 관한 오타와그룹보고		
	item4(g)	2008/21	과학기술통계		
	item4(h)	2008/22	비공식부문에 관한 델리그룹보고		
	item4(i)	2008/23	농업통계		
	item4(j)	2008/24	환경통계		
	item4(k)	2008/25	환경계정		
	item4(l)	2008/26 2008/27	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item4(m)	2008/28	국제경제사회분류		
item4(n)	2008/29	개발지표			
item4(o)	2008/30	경제사회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item4(p)	2008/31	국제통계활동에 관한 원칙			
2.29 금	item5		프로그램질의(유엔통계처)	30'	
	item6	2008/32	40차 유엔통계위원회 임시의제 및 일정	30'	
	item7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	120'	

② 고용통계[E/CN.3/2008/2 Program Review of Employment Statistics (ONS, UK)]

고용통계 작성기관간 격차 및 성과

○ 고용통계 필요성

- 노동시장 변화 및 경제적 영향 측정
- 의사결정 기반
- 세계화와 같은 신경향(future trends, 또는 뉴패러다임) 이해
-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상관관계 파악

○ 고용통계 지표

- ILO, OECD, Eurostat은 고용통계 지표 작성 주요기관이며 ILO는 20개 KILM (주요고용통계지표) 제공
- 국가별 여건 및 국제기준의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시간, 연령, 경제활동인구, 실업 및 여성경제활동비율 등에 관한 정확한 국제 비교 불가.
- ILO는 국제기구(ILO, OECD, Eurostat)간 기준 일치 및 공통지표 창출노력의 일환으로 "ILO-Comparable Program" 실시.

○ 국제기구 역할

- 고용통계 작성/제공 국가별 응답률 저조로 인한 고용통계 품질 저하를 피하기 위해SDMX를 이용한 단일 고용통계 정보집계시스템 구축 및 고용통계 집계/비교/배포 방법 재고.
- 개발 사업 ILO 내외 통계 개발 및 통합 틀 개발(Decent Work Agenda), ISCO-88 개정판, ICLS(고용통계전문가회의) 결의안 작성 (이상 ILO), LFS(노동력조사) 품질개선 및 연간모듈 개발, NACE Rev.2 활동분류 및 고용품질 지표 시스템 이행 (이상 Eurostat)
- 기술 지원 ILO/PARIS21 공동 개도국 고용통계 작성 지원, 기술매뉴얼/가이드라인/훈련 제공, 국제훈련센터 운영 등
- ILO 역할과 표준 국제노동기준 제공자로서 ILO 조약 및 권고안 제공, 국제노동전문가회의(ICLS, 개략 5년마다 개최)를 통한 고용통계 작성 기준 제공 등 * ICLS 회의 정례화 및 개최 연한 단축 권장.

유엔 회원국 조사

○ 배경 및 응답률

- 향후 고용통계 작성에 있어 우선순위 파악 목적으로 유엔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36%).

- 응답 국가 고용통계 품질

- 고품질 사업체통계 기반의 월별/분기별 LFS 실시(56%), 임시 LFS 또는 일부 사업체통계 기반의 고용통계 작성(21%), LFS 미 실시 또는 사업체통계 부재 (23%)

- * LFS Labor Force Survey, 노동력 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한국)

- 개발 토픽 우선순위 (응답 결과) 노동력 구조 변화, 비관측 경제 및 비공식 고용, 생산성 측정.

- 현 노동시장 틀 확장(또는 확대)

- 배경 : 영국통계청은 고용통계 품질평가 환으로 노동계정체계(LAS) 개념틀 개발. 4대 주요 측정단위는 people(고용상태), posts(직업), money(급여), time(근로시간).

- 고용통계 틀 개선

- 동적측면 개선 인구이동, 퇴직/취업연령 변화, 개/폐업 등 저장(stock)보다 유량 (movement, flow 또는 변화) 측정 개선을 통해 노동력 저 활용 (underutilization) 측정 시도.

- 노동수요 측정틀 노동공급 외 노동수요 측정을 위한 별도 틀 구축.

- 가족 및 가구 고용통계 이용 확대 가족 및 가구 구성의 다양화, 간소화로 인해 변화된 특성 반영.

- 타 분야와 상호작용 확장 보건, 교육, 국민계정, 인구 등 중첩 정보 확인

- 논점 (또는 논의사항)

- 비교 가능한 고용통계 생산/제공을 위한 방법과 개념 개선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 활동 계획 작성

- 계획 이행 협력 등

- 국가별 고품질 고용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체계 개발

- UNSD, OECD, Eurostat과 협력하여 국제표준 작성 절차 개선

- ICLS 회의 안건, 연한, 개최 주기 점검- 전문가 그룹 확대 활용

- 개발사업별 주제 점검을 위한 작업반 구성

- 노동력 구조 변화

- 비공식 고용 및 비관측 경제- 어린이 및 강제 고용(또는 노동)
 - 생산성 측정
 - 세계화
 - 일관성 또는 연관성 개선을 위한 고용통계 틀 개정
 - 유량(flows, 또는 유동정보) 정보 측정
 - 노동공급 외 수요 측정 고려- 가족 및 가구 정보 통합
 - 기타 통계 및 정책 분야와 연계 또는 통합
-

□ 코멘트(고용통계과)

-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ILO가 고용통계의 개념과 방법론을 표준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함
 - 이를 위해 ILO 비교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국가수를 늘리고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향후 작업 부문으로 선정된 다섯 가지 토픽에 대해, 워킹 그룹을 만들어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을 지지함
 - 이 워킹그룹에 국가들이 참여하여 국가별 니즈(needs)가 무엇인지, 각 국의 노동력조사에서 이를 어떻게 수렴하고 분석할 것인지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함
- 노동력조사에서 노동의 동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함
 - 노동의 스톱 자료의 풍부성에 비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간 이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 방면에 대한 지표와 분석이 강화되어야함
- ILO 주관의 ICLS Meeting(국제고용통계인 컨퍼런스)의 주기(5년에 한번)와 기간(10일)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코멘트
 - 한국은 회의의 시의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기를 2-3년에 한번씩으로 당기고 기간은 5일 정도로 줄이는 것을 제안함

□ 고용통계관련 협의내용

- 위원회는 영국이 준비한 수준높은 보고서에 대해 치하하며, 보고서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ILO의 건설적인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
- 위원회는 자국내 또는 국제적 범위에서 고용통계의 질적수준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조정역할의 필요성과 통계활동조정위와의 협력을 통한 추진 강조
- 위원회는 조사방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개념상 프레임워크의 상호 조화, 관련 정의, 평가 및 노동계정프레임워크의 업데이트, 본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는 전문가 및 실무그룹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 강조
- 위원회는 프로그램 검토에서 제안한 내용의 전면적 이행은 현재 ILO 자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안의 우선순위 화와 전면적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요청
- 위원회는 공여사회에 보다 나은 노동통계 생산을 위한 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 지원을 요청하고 기술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협력프로그램 내에서 추진을 제시
- 위원회는 ILO 노동통계관련 국제회의의 성과를 환영하며 운영, 특히 회의주기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고 통계위 회원국들의 차기 회의 참석요청
- 또한 위원회는 ILO에 노동통계관련 국제회의 결과 및 검토보고서 제안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 활동에 대해 제40차 유엔통계위에 보고를 요청

③ 교육통계[E/CN.3/2008/3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on education Statistics]

- 이 보고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틀(Framework)을 살펴보고 이러한 측정의 기본 틀이 통계 측정치를 생산하고 활용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개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보고서는 통계 자료의 생산과 배포 단계별로 관련 주체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협력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음.

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 제 38차 유엔교육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캐나다 교육통계 보고(E/CN/3/2007/2)에 의거하여 교육통계 T/F 팀이 구성되었고 UNESCO 통계위원회(UIS)가 T/F팀의 위원장(convener) 역할을 담당함.
- UIS는 2007년 5월에 UN 통계국, Eurostat, 캐나다 통계청, 호주 통계국 관련자들과 함께 회의를 주관하고 이 모임에서 교육통계 측정에 관한 기본 틀(Framework)과 자료 수집, 처리, 배포와 활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음.
- T/F 팀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쿠바,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UIS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나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표 기본 틀에 관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에 대해 조사하며,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적 요구와의 (잠재적인) 간극을 확인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제고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안함.

2. 연구설계 및 활동

- 국가 수준과 국제 수준에서 자료 생산자와 활용자로부터 연구 측정의 기본 틀과 협력 기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연구가 고안됨. 2007년 12월에 다음 활동이 수행되었음.

□ 현황 조사

- 7개의 T/F 위원국과 12개의 다른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함.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통계 측정치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국제기구의 활동 조사. 국제기구의 예는 UNESCO와 다른 UN기구, OECD, EUROSTAT, World Bank, 지역 개발 은행, 지역 은행(APEC, ASEAN) 등임.
 - 이 활동 중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과 중복된 영역, 간극이 있는 영역을 발견.
 - 국가 간의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현재의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과 권고사항 수합.

□ 국제기구로부터의 자문

- 국제기구로부터 개별적인 자문을 얻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구들 간의 협력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반복되는 일을 피하고 국가별로 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함.
 - ISCED와 같이 국제적인 측정 기준을 유지하고 그대로 실행함.
 - 프로파일과 핵심적인 표준(standard) 설정하고 과업을 확장함
 - 표준 간의 연계, 역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같은 특별한 이슈를 다룸.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OECD와 EUROSTAT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정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는 중임. 또한 이 기구들이 사용하는 교육 측정의 개념 틀과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음.

3. 스케줄

- 인터뷰, 자료 검토, 분석은 2008년 2월까지 마칠 것이며 2008년 3월에는 초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함.

□ 코멘트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센터 국제분석팀 박 종효)

- UN 교육통계 자료와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쳐 개발된 UN 교육통계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존하는 국제적인 교육통계 자료나 지표와 UN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료나 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존의 OECD 교육지표나 HDI나 IMD의 지수와 달리 UN 교육통계가 고유하게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국가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교육통계 현황과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여전히 국가별로 교육통계 자료 및 지표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 학제나 교육과정 등 교육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배경지식이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수준이나 질을 정량화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별 현황과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교육통계관련 협의내용

- 위원회는 교육통계 테스크포스 성과에 대한 유네스코통계연구소의 보고에 대해 환영하고, 각 회원국들의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인식, 국제교육통계에 관한 일반적 프레임워크의 구체화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또한 교육통계 관련 국제기관들 간 보다 향상된 조정을 위한 구조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테스크포스의 중요성 강조
- 위원회는 테스크포스 내 지역 대표성을 높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현실 반영을 요청

④ ICP[E/CN.3/2008/4 The Friend of the Chair Review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2005 Round]

□ 토론 포인트

○ 116절에 대한 의견을 요청

- 116절 내용 :

추진이 계속되기 위해서, ICP의 지속에 대한 결정은 2008년 초에 해야함. 더 나은 신 기준년도는 2011년일 수 있음. 이것은 ICP가 OECD/Eurostat 시스템과 보조를 맞추므로 결국은 두 프로그램이 통합될 수 있을 것임. 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목적은 조사프로그램에 대한 3년 주기접근을 사용하는 OECD/Eurostat 시스템과 ICP가 함께해야한다는 것임. 전 GDP 범위로 확대하려는 ICP 발전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함

□ 코멘트 : (물가통계과)

○ ICP는 그 동안의 노력을 비추어봐도 ICP 프로그램은 계속 되어야 하며, ICP 프로그램이 OECD/Eurostat 시스템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신 기준년도는 2011년, 주기도 3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 또한 ICP 발전의 일환인 GDP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ICP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함

[E/CN.3/2008/33 Report of the World Bank on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 토론 포인트

○ UNSC는 전체(global) 및 지역(regional)자료의 발표, 동 자료의 유용성 및 접근성의 확보, 사용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취할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

※ 한국통계청은 OECD PPP 업무와 협력관계이므로 세계은행의 ICP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따라서 인사말만 언급

□ 코멘트 : (물가통계과)

- 우선 ICP 2005 라운드의 완결을 축하하며, 보고서 발간 등의 2005라운드의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함
- 그동안 UN 및 세계은행 그리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ICP의 작성기법이 날로 발전하였으며, ICP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Worldbank 관계자, UN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
- 또한 향후 실시될 ICP 2008라운드도 그간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 그 결과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램

□ 국제비교프로그램 협의내용

- 위원회는 146개국을 포괄하는 2005 국제비교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치하
- 2005라운드 평가에 대한 FoC의 포괄적인 보고에 공감하고 결론과 제안에 동의
 - 2011년을 목표로 한 ICP프로그램의 지속에 동의(축적된 경험, 각국별 강화된 역량에 근거한 모멘텀 유지, OECD/Eurostat 프로그램과 연계)
 - 국민계정발전에 기여할 전체 GDP비교 계획 지지
 - 세계은행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격려하고 향후에도 ICP글로벌 오피스로서 역할 요청
- 임시집행위원회 설립지지(현집행위원회+FoC그룹멤버+관심국가)
 - 산하 실행위원회를 설립 차기라운드 추진에 중요한 이슈처리(i.e. 글로벌매니저 채용, 펀드모금전략, 사용자로부터 피드백 수렴전략, 05라운드 교훈공유, 방법론 연구를 추진할 파일럿 스터디 구성)
- 차기라운드 이행모델에 관한 지속적 토론요청(40차 통계위) 및 세계은행의 전략문건 요청(다음사항 수록요청)
 - ICP포괄지역 확대방안(특히, 태평양, 캐리비안, 중미국가)
 - 자료접근 및 공유정책의 명확화
 -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촉진과 사용자그룹의 지지를 유도하 ICP참여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제안
 - ICP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물가통계에서 뿐 아니라 국민계정에서 지속적 기술협력프로그램 구축 제안

- ICP와 국가통계프로그램과의 통합에 관한 제안
- ICP결과 사용촉진을 위한 주요 현재 및 잠재사용자와의 협력방안
- 2011년 라운드 ICP가 몇몇 나라에서 인구센서스와 중복 어려움이 있어 ICP 주관기관에서 이 문제관련 적절한 전략수립 요청
- 차기 라운드 자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ICP프로그램 파트너들의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에 노력을 강화 지지

⑤ 국민계정[E/CN.3/2008/5 Report of United Nation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IWGNA- 국민계정 (범부처 또는 공동)작업반,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Eurostat, IMF, OECD, UN, World Bank로 구성

1. 개요

- 제 38차(2007년) 유엔통계위원회는, 개정 SNA 권고안 채택 (44개항). 연금 수급권 지침 마련, R&D 자본화 연구, 비공식부문 통합측정 지침 보완 지시. 개정 SNA 이행 매뉴얼 및 핸드북 발간 지시
- 개정 SNA Vol. 1(2008), Vol. 2(2009년) 보고 찬성
- 국가별 개정 SNA 이행 상황 보고 요청
- SNA 장기 논의를 위한 고위그룹 구성 동의

2. 국민계정 개정안 Vol. 1

- 31개 국가통계기관, 중앙은행 및 전문가 의견 검토를 위한 자문단(AEG) 회의(2007. 3) 및 공동작업반 제안 등을 수렴하여 부록에 예시된 바와 같이 Vol.1 수정.
- 채택 권고안 자산/금융서비스/세계화와 자금흐름/정부와 공공부문 등 4개 분야
- 특성에 따라 생산/자본/금융 계정 내용 추가 및 자산/대차대조표 일부 변경.
- 16장(summarizing and presenting the accounts) 및 17장(cross-cutting and other special issues) 추가
- *16장 GDP 및 소득총계와 계정순서 관계, GDP/GNI 변환 등 수록

*17장 보험, 사회보험, 용자보증(또는 대출보증, loan guarantees), 연금, 리스 & 라이선스, 스톡옵션 등 수록

○ 향후 계획

- 2009년, SNA 개정안 Vol.2 보고
- 자문단 회의 개최 (2008년 하반기) Eurostat/유럽중앙은행 태스크포스 (연금), OECD 태스크포스(R&D), UNECE/OECD/Eurostat 작업반 (제품중개 및 가공), 델리 그룹 회의 (비공식부문 통합측정) 등 사안별 전문가 그룹 활동 지속 추진
- '국민계정 핸드북: 환경-경제 통합계정' 수정 및 기타 관련 국민계정 매뉴얼, 핸드북 갱신 (환경계정)

3. 이행 전략

○ 배경 및 지역 내 인식

- 전OECD 회원국은 2014년까지 이행 완료 계획. (호주, 2009년)
- 개발도상국 90%(아프리카지역 제외)가 국민계정 통계 보고
- IMF는 DQAF(자료품질평가틀)을 이용하여 국가별 국민계정통계 평가 후 ROSCs에 결과 등재. 2007년 말 현재, 78개국 결과 보고서 수록 (<http://dsbb.imf.org/Applications/web/dqrs/dqrsroscs/>)

○ 이행 방법

- 회의/교육 세미나/워크샵 개최
- 기술협력 제공
- 핸드북/매뉴얼 발간 국민계정 통합 틀 방법론 가이드 등
- 연구조사 후원 국민계정 개념, 위성계정 및 기타 방법론 가이드 발간 등

○ 능력 구축: 훈련 및 기술협력 개도국 지원을 위한 훈련 세미나, 워크샵, 국제회의 개최- SNA 개정안 이행 관련 능력구축 협력 회의 (2008. 5. 6-8, Eurostat & UNSD 주관)

○ 국민계정 및 경제통계 방법론 매뉴얼 및 핸드북 발간

○ 개정 SNA 및 위성계정 연구조사 실시

○ 옹호 경제와 사회, 환경 연계 및 정책적 유용성 옹호

4. 국민계정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고위그룹 설립

- 관련 회의 개최(2008년 하반기 예정) 및 40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최종 안 제출 (2009년)

5. 논의 사항

- SNA 개정안 Vol. 1의 국제통계기준 채택 및 국가별 이행 독려
- SNA 개정안의 경제 및 기타 통계, 국제 보고 틀로서의 활용 권장
- 5대 이행 전략 관련 회의/세미나/워크샵 실시, 기술협력, 매뉴얼/핸드북 발간, 연구조사 및 옹호 지원 등 관련 논의 요청

□ 국민계정 협의내용

- 위원회는 개정 국민계정시스템 volume 1을 국민계정통계의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회원국 및 지역, 국제기구의 표준의 이행과 개정국민계정에 입각한 국민계정의 보고를 포함한 개정 국민계정 이행의 지지를 촉구
- 위원회는 개정 SNA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ISWGNA 2008년 4월말까지 추가로 두 달의 시간을 더 주자는 제안에 동의. 이 기간동안 이해관계자들은 38차 통계위에서 채택한 44가지 이슈에 대한 제안과 명확성 및 일관성이슈와 개정 SNA의 개념적 일치성, 일관성을 검토할 예정. 이 기간동안 개별국가들과 국제기구는 합의된 제안에 대한 개정이나 전면적 틀의 변화가 아닌 범위 내에서 검토내용을 ISWGNA에 보고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두 달간의 검토기간에 제출된 내용을 고려, 통계위 의장단 승인을 받은 후 편집초안의 전자 및 페이퍼버전의 volume1의 완결과 출간을 추진을 지시
- 위원회는 또한 우선순위를 두고 volume1의 공식편집을 추진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어 유엔 공식 언어로의 출간계획 확인
- 위원회는 ISWGNA가 개정 SNA volume2가 적절히 완료되어 제38차 위원회에 보고되었던 바와 같이 제40차 위원회에 채택을 위해 보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위원회는 ISWGNA에 제40차 위원회에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개정 국민계정의 이행방안에 관한 전략제출을 요청하고, 전략에는 5월 6일~8일사이 유엔통계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럽연합통계위원회 공동개최하는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민계정의 확장과 조정' 국제회의 및 정부간 지역간 미팅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청
- 위원회는 세부전략은 각국의 서로 다른 통계발전 정도를 고려, 지역간 조정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분석관련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전략의 정교화의 필요성을 인식

- 위원회는 ISWGNA관계국 및 이해당사국이 국민계정에 관한 고위급 모임 창설관련 미팅소집과 제40차 위원회 보고계획을 환영
- 위원회는 ISWGNA가 volume1에 대한 두 달간의 검토기간동안 개정 SNA의 제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단에 결과보고를 요청. 의장단은 위원회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

⑥ 경제통합통계[E/CN.3/2008/6 Report of the Friends of the Chaire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경제통합통계관련 논의배경

- 통합 국제통계프로그램 등에 관한 논의는 UN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온 의제이며, 가장 최근의 논의는 37차 UN통계위원회에 경제통계에 관한 통합 프로그램과 경제통계관련 주제 간 조정메커니즘의 설립에 관한 제안이 있었음
- 제37차 통계위원회는 경제통계에 관한 통합접근을 지지하고, 국가통계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적용을 제안. 또한, 위원회는 경제통계 통합접근 모델에 관한 컨셉페이퍼 작성을 위해 FoC Group설립 제안

통합경제통계의 필요성

- 통계사용자는 특정부분의 통계가 전체경제에 들어맞길 기대. 일관되고 일치된 통계제공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통계의 잘못된 해석과 정책실패를 유발
- 통합 경제통계의 이점
 - 사용자 요구의 충족, 데이터 품질의 감독 및 개선의 용이, 통합 틀 적용과정에서 데이터개선 촉진, 서로 다른 데이터간의 통합이나 비교촉진, 서로 다르지만 일관된 자료소스의 분석을 촉진, 통계생산프로세스의 정비 유도를 통한 통계생산의 효율화,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통계생산에 있어서 내·외부 제약여건에 대한 관심촉발

- 통합경제통계는 비용을 수반. 통계기준의 조화, 통계생산프로세스의 재설계, 기관관 협력관계의 재설정 등을 위한 자원투자 요구.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통합하는 것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판단 필요

□ 경제통계 통합이란?

- 경제통계의 통합이란 통계 간 조정에 관한 것. 즉 통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치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경제통계에서의 통계 간 조정은 과거에는 주로 국민계정, 매크로 어카운팅 및 분류 틀을 적용할 때 사용되었음.

- 경제통계 통합시 3개 부문의 통합필요; 수평적, 수직적, 시간통합

- 수평적 통합 : 다양한 기초통계의 조정,
- 수직적 통합 : 기초통계와 거시경제/국가통계와 국제통계 조정
- 시간적 통합 : 같은 경기 국면 내 다른 시점의 단기경제통계와 구조 경제통계 간 조정

- 경제통계에 관한 통합접근 시 고려사항

1. 개념상 이슈

- 경제통계의 통합을 위해선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SNA93. 숫자상의 일치뿐 아니라 개념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SNA93의 역할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됨

2. 통계생산 상 이슈

- 경제통계 간 불일치의 주요원인은 서로 다른 산업과 활동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독립적으로 실시.
- 경제통계의 통합은 통계디자인과 개발목적의 변화를 요구.
- 일관된 분류를 해당 통계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통계의 일관성에 핵심. 문제는 단위 모델과 분류가 모든 통계측정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

3. 조직상 이슈

- 경제통계의 통합은 법적, 기관, 조직 및 통계조건에 달려있음. 따라서 단 하나의 구체적인 실행접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중요한 부분은

1) 통계생산기관 간 구조적 대화를 가능케 할 채널의 존재

2) 경제통계 선도기관이 국가통계시스템 내에 규정되고 법/규정에 의해 기능이 부여되며, 타 통계생산기관이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

- 국제통계기관도 동일하게 중요

□ 통합경제통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제통계의 통합은 통계생산 전 부문을 포괄.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일관성, 일치성, 폭, 깊이임.
 - 일관성 : 동일 개념, 용어, 기준, 통계단위의 필수적 사용
 - 일치성 : 데이터 간 상호 연결
 - 폭 : 경제통계프로그램의 범위 의미(포괄적이어야 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깊이 : 경제통계프로그램의 깊이를 의미(i.e. 공산품, 구체적 산업의 수준 등)

〈프레임, 샘플링 및 적용범위〉

- 본 원칙은 중복되지 않은 프레임시스템, 공통샘플디자인, 기업중심접근법, 행정데이터의 집중사용에 관한 것. 통합경제통계의 개념은 생산될 통계에 적용될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요구.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는 중심프레임의 개발과 유지에 있음. 또한 이러한 프레임은 설문활동의 중추를 나타냄.

〈내용 및 수집〉

- 공통된 개념, 용어, 기준 및 포괄적인 연간 경제조사치 사용의 필요성 강조
-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서로 다른 기본개념의 사용에서 비롯 (i.e. 단위, 거래 등). 서로 다른 개념의 일치는 차이를 줄이고 일관된 데이터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음.
- 이의 실행을 위해선 통계생산에 필요한 변수와 비즈니스 회계데이터 간 구조도의 구축이나 계정의 목록을 요구. 계정목록은 비즈니스 회계와 통계기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회계 프레임워크를 연결시키는 도구. 이는 사업계정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초경제통계 및 국민계정 변수 간 연계를 촉진.
-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경제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경제자료 수집을 개발하는 것.

〈프로세싱, 자료수집 후〉

-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편적인 프로세싱시스템과 방법사용의 중요성 (공통된 편집 및 무응답 처리 방법 등). 통계조사 결과 치 제공만으론 충분치 않음. 결과는 반드시 분석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국민계정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통계자료를 통합하는데 관계된 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 통합접근의 중요한 목표는 비용은 감소시키는 반면, 데이터품질과 적시성을 개선하기위한 통합처리 도구를 만드는 것.

〈산출물〉

- 본 단계에선 적시성, 정확성, 세부데이터의 적절성등 통계기관이 취해야하는 선택을 다루고 있음
- 적시성과 정확성간의 선택은 어려운데, 고객이 빨리 데이터 접근을 원하더라도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은 요구. 어떤 접근을 하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통계기관은 즉시 공표를 해야 함. 또한 부단한 통계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국민계정에서의 피드백〉

- 국민계정은 일관된 거시경제 결과 전달을 목표로 방대한 양의 경제데이터를 취합하는 분석도구임. GDP는 생산, 지출, 소득 등의 3가지 취합방법에 의존. 3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경제통계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예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계정 작업 시 생산자, 사용자, 소득수혜자등에 공통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상품, 산업, 소득 카테고리, 자산 등의 정의와 기준등도 공통의 것들을 사용해야 함
- 서로 다른 데이터세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제 데이터의 불일치, 불완전 및 기타 단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국민계정은 경제통합통계의 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통합경제통계 관리를 위한 기관관 협력〉

-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이유
 - 대부분의 통계는 중앙통계기관이외 국가기관이나 유사국가기관 등에서 생산. 이러한 통계는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와 통합되어야 함
 - 행정정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통계기관 통제범위 밖의 기관에 대한 의존성 증가. 중앙통계기관의 필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자료가 수집 되도록 하기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
 - 한 기관이 국가통계시스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때 경제통계통합이 더 효과적.
 -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보좌위원회, 관계강화를 위한 미팅, 양해각서 및 서비스레벨 협약서 체결이 필요

□ 결론

- 경제통계통합은 통계의 결산에 관한 것으로 통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 일관되게 해주는 작업. 통계적 결산은 주요경제통계, 거시경제계정, 장단기 경제통계, 국내/국제 경제통계 등을 포괄. 따라서, 개념적, 통계생산적 그리고 기관적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인력의 문제와 IT 시스템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고려하여야 할 부분임

- 경제통계 통합은 데이터의 일치와 일관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촉발
- 각국의 통계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경제통계에 대한 단일하고 구체적인 접근법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관간 협력은 통합경제통계의 관리에 중요하며, 개선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

□ 제안

- 경제통계 조정프레임워크인 SNA93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고 SNA업데이트 전략수립 시에도 고려해야 함
- CCSA는 경제통계통합의 가속화를 위해 경제통계분야의 국제기관간 조정을 강화해야 함
- 유엔통계처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해야 함
- 유엔통계처는 추가적인 통합이 유용한 통계분야의 발굴을 추진해야 함

□ 코멘트 : (산업통계과)

- 국제적으로 통합 경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SNA 93에 의한 경제 통계에 대한 조정 틀의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하고, ISWGNA에 의해 개선된 SNA를 고려한 기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국가간 통계의 비교정합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 그리고, 경제 통계분야에서 CCSA(The Statistical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가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국제기구간 협조가 더욱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기준에 관한 통계위원회와의 협조속에 UNSD는 통합경제통계 작성이 더욱 확대될 수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우리 통계청에서도 2011년도 경제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 우리가 준비하는 경제센서스는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모습을 파악하는 통계로서 전 산업의 생산구조 파악을 위해 통일된 기준과 조사체계에 의해 조사하는 대규모 전수 통계이다.
- 경제센서스는 우리 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산업별 조사결과의 정합성 및 비교성을 제고시키고,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항목 표준화로 통일된 통계자료를 생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경제센서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청에서는 The FoC Group에서 내린 결론에서 보여주는 일관성과 논리성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SNA93에서 권고하는 바를 반영하여 국내 경제통계 뿐 아니라 국제간 경제 통계의 비교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향후 경제 통계 통합과 관련한 USND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제통계의 국제간 비교성 및 정합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겠다.

□ 통합경제통계

- 위원회는 FoC의 결론과 제안에 동의
- 위원회는 SNA의 역할을 경제통계 통합의 프레임워크로 확인하고 기본 경제 통계와 거시경제통계의 수준과 분석가치를 향상을 위한 기본경제통계의 일관성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함
- 위원회는 사례의 수집 및 배포, 경험공유 및 각국 국가 통계시스템 내 통합 접근 이행을 가이드하기 위한 실용적인 자료개발의 필요성과 그러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
- 위원회는 통합의 실질적 측면에서의 지침이 사용자와 자료제공자간 협력의 필요성, 중앙사업자등록부 개발의 필요성, 행정자료 사용의 필요성, 서베이 간 데이터 내용의 개념적 조화의 필요성, 국가통계기관내 중앙집중형의 강한 서베이 조정기능의 필요성, 서베이 데이터와 대응되는 행정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의 필요성, 보고기관의 부담을 감안한 샘플링전략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제안함
- 위원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집중형 통계시

스텝과 분산형 통계시스템상 차이에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

- 위원회는 기본경제통계 수집, 중앙사업자등록부의 도입 및 유지, 자료수집 행정인프라 구축, DB유지, 서버이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입수 등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러한 이슈들은 경제통계 심화의 관점에서 지침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한다고 제안
- 위원회는 새로운 FoC에 의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관심국의 참여와 그룹의 조정자 역할수행에 대한 관심표명을 요청

⑦ 관광통계[E/CN.3/2008/7 Joi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on tourism statistics]

1.개요

- 35차 유엔통계위원회 요청에 따른 유엔통계처 및 세계관광기구 활동 결과보고서로 35차 위원회는 관광통계 협력 강화 및 주기적 국제 권고안 갱신 요청. 사업 이행을 위해 세계관광기구/OECD/Eurostat 공동협력 반 설립과 통계 활동조정(또는 협력)위원회 관할사이 견해 차 상존.

2. 35차 통계위원회 이래 권고안 개정 관련 조직

- 관광통계 공동 작업반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 RTS 1993(1993 관광통계 권고안), TSA:RMF(관광위성계정: 방법론 틀 권고안), 거시경제 틀간 격차 축소 노력
 - 개정안 및 개념 정의(주거/일반 환경, 관광/여행, 등) 총회(6회), 기술회의(5회) 개최
- 세계관광기구 전자 포럼 (2006. 4월 10일)
 - 목적: 국제 권고안 개정 관련, 국기통계 및 관광기관 견해 및 건의사항 수집, RTS 1993, TSA:RMF 개정 사항 논의
 - 결과: 27건의 건의사항 및 권고안 개정 지지 확인
- 관광통계 워크숍 (2006. 7. 17-20)
 - 관광통계 집계 국가별 사례, 1993 권고안 검토 및 건의사항, 관광통계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기관별 역할 등 논의

- 결과: 데이터 원천, 집계방법 확인, 보고부담 최소화, 국가간 비교 증진 외 사용자 요구,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 측정, 메타데이터, 잠재적 자료원천/집계방법, 자료제공, 관광 소비와 공급 등 광범위한 사항이 권고안 개정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안.

○ 세계관광기구 통계위원회

- 2007. 3월 리스본회의: 관광/방문객/관광여행 목적등 개념 정의 기틀 제공.

○ 유엔 관광통계 전문가그룹 2007. 6. 25-28)

- IRTS 2008 예비안 논의
- 메타데이터, 품질, 통계제공, 국제협력, 사업 및 정책 이행 등 과거 논의된 바 없는 분야 권고사항 포함 동의
- TSA:RMF 2008 (2008 관광위성계정) 초안 논의

○ 국가 통계/관광 기관 자문

- 세계관광기구 통계위원회 리스본 회의, 관광통계 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3.개정 권고안 및 이행 계획

○ 개정 권고안

- 방문객(visitor) 개념 재 정의: 구직 방문자 제외, 단순 경유자 포함
- 여행(trip)과 방문(visit) 특성 구분
- 별장(vacation home), 개인 주거환경에서 제외
- 여행단(travel party) 처리
- 목적별(교육/훈련/치료 등) 관광분류 수정
- CPC Ver.2 및 ISIC Rev. 4에 따른 관광 소비상품 및 활동 분류 제안
- 관광 소비와 지출 구분
- 여행 중 구입한 소비 내구재 및 귀중품은 관광 소비/지출에 포함
- 관광위성계정: 관광통계 확장 및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자료수집을 위한 지침 마련
- 메타데이터, 자료품질/제공, 부처간 협력, 이행 사업/정책에 관한 권고안 마련

○ 이행 계획

- 빠른 시일 내 IRTS 2008 배포 및 이용 장려, 기술 지원 제공
- IRTS 2008에 맞춰 TSA:RMF 2008 마무리
- 가칭 '관광통계/관광위성계정 원칙과 권고'에 IRTS2008, TSA:RMF2008 수록

4.관광위성계정 갱신(또는 개정): 방법론 틀

- 방문객의 현금 최종소비와 기타 최종소비 구분
- 경제활동과 산업 구분- 국제분류 및 국가분류에 따른 관광산업 개념 확립
- 관광객 구매에 따른 상품/소매활동/이윤 처리
- 경제성 측정과 영향 분석 차원에서 관광위성계정과 관계 정립

5.논의 사항

- IRTS 2008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IRTS 2008 이행 지침 마련
- TSA:RMF 2008 개정안 논의

□ 관광통계 협의내용

- 위원회는 IRTS2008(2008관광통계에 관한 국제제안)을 채택하고 제안의 최종 판은 위원회의 제안을 반영 편집될 수 있도록 요청
- 위원회는 UNWTO와 UNSD가 지역기구와 협조하여 훈련워크숍의 조직과 수집가이드의 준비를 포함한 이행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
- 위원회는 '관광계정:2008 조사방법프레임워크 권고안'의 업데이트 보고받음
- 위원회는 IRTS2008과 관광계정이 신속히 유엔 공식 언어로 사용가능토록 요구

⑧ 유통교역통계[E/CN.3/2008/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distributive trade]

1. 배경

- 37차 유엔통계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유엔통계처의 현 유통통계 국제권고안 (Draf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2008, IRDTS 2008)에 대한 수정 계획을 승인. 본 진행상황을 38차 때 보고 받기로 함. 본 권고안은 39차 때 채택될 예정.
- 유엔통계위원회 추가 조언 사항
 - a. 각 국가 특수성 반영을 위한 각국 통계청과의 협의
 - b. 개별 국가들 수요와 역량에 맞는 보고서 작성
 - c. 각 국 부담이나 국제 기구들과의 중복 피하기 위한 기존의 통계DB 검토
 - d.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e. 기술적인 지원 활동도 수행

2. 유통통계 국제권고안 수정 진척 사항

- 유통통계 국제권고안 수정 전략
 - a. 개별국가 작성현황 연구를 통한 상황분석
 - b. 유통통계 전문가그룹결성
 - c. 39차에 제출될 수정권고안 검토
 - d. 유통통계작성 매뉴얼 준비
 - e. 유통통계 수집, 처리 및 공표에 대한 유엔 데이터베이스 구축
 - f. 개발도상국 지원
 - g. 2010년까지 개별국가 실행 점검 및 2011년 3월 보고
- 유통통계 국제권고 수정 현황
 - a. 국가별 유통통계 작성 현황 조사
 - 개별 국가들의 유통통계에 대한 상이한 정의로 국가 간 비교 어려움
 - 조사국가 중 40%는 분기별/월별 조사 및 관련 지표 작성 불가능
 - b. UN 전문가그룹 활동

- 2005년에 결성된 유통통계 전문가그룹의 목표 : 현 실정에 입각한 동 권고안 평가, 초안작성 및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조언, 잠정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유통통계 작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제시
 - 1차 회의(2005.8.22~25) 당시, 유통통계의 범위, 분류체계, 타 경제통계 권고안과의 부합 등에 대해 논의 됨
 - 2차 회의(2007.7.16~19) 당시, 잠정 수정 권고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매뉴얼 검토, 권고안에 대한 융통성있는 이행,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통통계동향 내용 삽입 등 논의 됨. 이를 위해 산업통계전문가그룹과 함께 논의
- c. 온라인포럼 : 전문가그룹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 신설. 수정 권고안에 대한 초안 및 관련 자료 교환. 2차 회의 시 동 온라인포럼을 활성화 하여 향후 유통통계관련 유엔통계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환영. 향후에도 유통통계 작성 및 보급을 위한 '지식기반' 플랫폼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 d. 유통통계 국제권고안에 대한 국제적 협의
- 통계위원회가 자문했듯이 유엔통계처는 각 국가와의 협의 진행. 이를 수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2006년 10월 11일 완성된 권고안 초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의 자세,, 투명성, 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환영함. 수정 초안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유통통계의 모든 측면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이뤄짐.
 - 2007.6월~7월, 전문가그룹의 검토와 함께 유엔통계처 웹사이트를 통한 초안 공개로 국제적 검토 진행. 40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에서 검토 사항 보내옴.
 - 전문가그룹은 2차 회의 당시 39차 위원회 채택 이전 '잠정 수정권고안'에 대한 마지막 검토작업의 기회를 해당 국가들에게 제공. 2007. 11월~12월 산업통계 권고안과 함께 검토 작업 실시

3. 수정 권고안 주요 변동사항

○ 주요 변동 사항

- 수정 권고안(IRDTS 2008) 은 기본 경제통계 작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통계 국제권고안, 국민계정체계, 국제산업분류기준, 생산분

류, 산출물분류 등과 같이 최근 현행화 된 다른 국제기준들과 보조를 맞춰 초안이 작성됨. 동 초안은 유통통계 작성의 모든 과정과, 연간 또는 단기 조사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방법론을 포괄하고 있음.

- a. 유통통계 범위 : 국제산업분류 기준 '섹션 G'에 의거, "도소매업, 자동차 정비"로 정의. 이전 통계에서는 요식업, 숙박업 및 일부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각각 다른 산업분류로 나뉘어져 유통통계 범위에는 속하지 않음
- b. 통계 단위 : 통계 단위의 세분화 이뤄져 비공식 부문 및 도매업체, 백화점, 프렌차이즈, 시장 등 세분화.
- c. 데이터 항목 : 데이터 항목 및 이에 대한 정의 수정됨. 수입, 지출 항목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장.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항목이 동 수정안에 포함되었지만 이 항목의 채택 여부는 개도국에 맡김.
- d. 성과 지표 : 동 권고안은 유통통계 실적에 대한 평가관심 반영. 통계 작성 뿐 아니라 수익성,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지표도 포함됨.
- e. 데이터 출처 및 작성 방법 : 데이터 출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확대. 행정자료활용, 사업자등록자료 활용, 데이터작성방법 등.
- f. 유통동향통계 : 유통지표작성, 시계열특성, 계절조정의 필요성 및 연간데이터와의 일치성 등
- g. 데이터 품질 및 메타데이터 : 품질진단틀 개발을 위해 고려됨. 품질진단 지표 및 적합한 메타데이터의 개발과 공표 등
- h. 데이터 공표 : 타 경제통계 분야의 권고에 맞춰 수정됨. 통계자료 비밀보포 등.
- i. 2008국민경제계상체계(SNA 2008) 권고안과의 부합 여부

4. 권고안 이행

- 위원회의 권고안 채택 후 공식 편집 -> 전자문서로 각 국가 배포 및 유엔통계처 웹사이트 개시.
- 유엔통계처 개도국을 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구상 중
- 유엔통계처 DB개발, 유통통계 공표, 국가별실행에 대한 수집 등
- 2개의 매뉴얼 준비 계획: 『유통통계작성 매뉴』 『사례로 본 유통통계지표』

□ 코멘트

1. 검토의견(종합)

- 유통산업통계 국제 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2008 : IRDTS 2008)의 내용은 현행 도소매업통계조사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CHⅡ(Statistical and Reporting Units) 및 CHV(Performance Indicators)에 관한 사항은 향후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 IRDTS 2008은 유통산업부문 통계 작성에 유익한 자료로 판단됨.

2. Section별 검토 의견

○ CH I . SCOPE OF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 para. 1.32 : ISIC, Rev.4(draft)에서는 도소매업에 자동차 수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은 제외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업을 제8차 개정(2000) 한국표준산업분류부터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ISIC, Rev.4(draft)와 동일하게 도소매업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CHⅡ . STATISTICAL AND REPORTING UNITS

- para. 2.49 :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비공식적 유통부문 (Informal Distributive Sector) 업종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 한국의 경우, 유통산업분야 통계(도소매업통계조사)에 비공식적 유통부문 사업체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사가능성 및 정확한 자료수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아울러 동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모집단(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리부서와도 포함여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임.

○ CHⅣ . DATA ITEMS AND THEIR DEFINITIONS

- para. 4.142 : 유통산업에 대한 매출액(사업체 단위)은 업종별 통계뿐만 아니라 품목별 통계도 작성할 것을 권고.

- 연간통계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는 산업별(세세분류) 매출액만을 파악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품목별통계 작성을 검토할 예정임.
- 품목별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조사방법, 산업별 품목분류 작성, 조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CHV. PERFORMANCE INDICATORS

- para. 5.1-3 : 수익성(profitability),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efficiency)과 관계되는 실적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수립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고.
- 도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 UN권고안이 제시하는 성장률(growth rate), 비율(ratio), 점유율(share)에 관한 실적지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가공할 경우 실적지표 작성이 가능함.

○ CHVII. SHORT-TERM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 para. 7.17(b) : 매출액 측정의 대안방법으로 투입지표로서의 고용지표 고려 권고
- 한국의 경우, 고용지표를 매출액 측정의 대안지표로 이용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업종별로 종사자수와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상이투입지표로서 고용지표를 사용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유통교역통계 협의내용

- 위원회는 배경문서에 포함되었던 2008 유통교역통계 국제권고안 채택
- 위원회는 보고서에 명기된바(지역훈련 워크숍의 실행, 유통교역통계에 관한 국가별 실행사례 수집, 유통교역통계 매뉴얼 준비등 포함)와 같이 2008 유통교역통계 국제권고안의 이행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위원국이 표출한 우려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청

⑨ 유통교역통계[E/CN.3/2008/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ndustrial statistics]

1. 통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 활동

1) 산업통계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Industrial Statistics; EG-IS)

- UN통계국은 2005년에 산업통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설립
198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산업통계에 대한 국제 권고(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n Industrial Statistics; IRIS)와 195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이 없었던 제품색인번호에 대한 매뉴얼(the Manual on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의 개정, 그리고 197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UN의 산업활동 산출물 리스트(the United Nations List of Industrial Products)의 개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 설립

2) 산업통계에 대한 국제 권고(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n Industrial Statistics; IRIS)의 개정

① 개정 과정

- 2005년 9월 열린 EG-IS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 제안
- UN통계국에서 EG-IS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IRIS 개정안에 반영
- 2007년 7월 EG-IS에 의하여 IRIS 2008의 개정안 작성
- 도소매통계 전문가 그룹(the Expert Group on Distributive Trade Statistics; EG-DTS)과의 회의를 통해 용어의 개념 등의 통일에 대한 논의
- 각국 통계 담당 부처의 의견 수렴
- IRIS 2008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나 국민계정 등 통계에 대한 국제 권고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

② IRIS의 주요 내용 및 변화한 것들

- 산업 활동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 발표되는 데이터 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원칙들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제적인 일관성 갖추
- IRIS 2008 개정안은 크게 다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음
 - 첫 번째 파트에는 1983년 IRIS의 내용에 따라 산업통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

의된 권고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두 번째 파트에는 1983년 IRIS에 없었던 내용인 산업통계의 보급, 데이터 품질, 데이터 수집 전략,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들이 수록되어 있음. 이 부분은 첫 번째 파트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개정안에는 다음과 관련된 주요 변화가 있음.
 - 1993년 개정된 국민계정에서 산업통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변화들
 - 제조 공정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제품의 처리
 - 우리사주(employee stock options) 등과 같이 임금에 더해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들의 처리
 - 특별한 환경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활동 외의 부수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러한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사업장의 처리
 - 자산에 포함되는 각 용어들의 분류
 -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조성된 자산
 - 연구 개발 비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산의 처리 등
 - 제4차 국제표준분류에서 쓰레기 처리업과 하수업이 대분류 E에 포함되면서 IRIS의 지난 버전인 1983년 버전의 경제 활동 개념보다 그 범위가 더 확장됨
 - 제조 공정이 한 국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 반영
 - 부가가치의 개념을 센서스 부가가치 대신에 국민계정 상의 총부가가치 개념으로 사용
 - 1993년 국민계정체계에서 권고된 방식인 기초가액에 의해 산업활동의 산출물의 가치를 평가함
 - 경제와 환경 사이의 관련성 강화

3) 제품색인번호에 대한 매뉴얼(the Manual on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의 개정

- EG-IS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2008년 1/4분기 중 매뉴얼의 초안이 완성될 예정
- 매뉴얼은 승인 절차를 위해 2009년 통계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

4) UN 통계국 산업 통계 작업 프로그램의 향후 활동들

- industrial commodity의 데이터 수집은 통계국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서 계속 이루어질 것임. 2006년 기준의 데이터에서는 약 600여개 commodities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가치도 제공될 예정

- 산업 산출물의 색인번호(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 수집은 월별, 분기별, 년별로 계속 수집될 것임
- 통계국 산업 통계 웹사이트가 산업통계에 대한 정보 제공 핵심 포털 사이트로 개발되고 있음

2. 앞으로의 일정

- 1) UN통계국은 EG-IS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총체적이고 비교가능한 산업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국제 권고의 변화를 각국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역적인(regional) 워크숍을 개최해 나갈 예정
 - 또한, 산업 통계 생산자 및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통계에 대한 지식창고(knowledge base)를 개발할 예정

□ 코멘트

- 1) 산업분류에 대한 국제 권고 개정안(the draft of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Industrial Statistics 2008; IRIS 2008)에 대한 의견
 - 국제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산업 통계의 대상 산업 영역이 확장되었음. 또한 산업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단위에 대한 개념 및 각 조사 항목들에 대한 개념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산업통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변화에 따라 IRIS가 새로운 산업 영역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개념 정의 및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함. 우리 청에서도 국제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2008년부터 새로 개정된 표준산업분류를 적용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또한 용어의 개념, 조사 기준 등에 있어서도 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임.
- 2) 지역적인(regional) 워크숍 개최와 기초 경제 통계에 대한 지식 창고(Knowledge base platform on basic economic statistics) 구축에 대한 의견

- 유엔통계국의 향후 계획인 지역 워크숍 개최와 지식 창고의 구축은 모든 통계 작성자 및 이용자들을 위함일 뿐 아니라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산업 통계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산업 통계의 작성에 국제적으로 일치된 원칙과 용어 개념이 적용되어야만 각 국 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엔통계국의 향후 계획이 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를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임에 그 인식을 같이 함.

□ 산업통계 협의내용

- 위원회는 2008 산업통계에 관한 국제권고안 파트I을 채택(통계단위에 관한 권고안, 통계단위의 특징, 자료아이템 및 정의, 산업통계에 관한 국제권고안으로서 국제리포팅시 데이터 아이템 등 포함)
- 위원회는 또한 권고안 파트II를 지지(성과지표에 관한 지침,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수집전략, 자료의 수준 및 메타데이터, 산업통계의 배포등 포함)
- 위원회는 2008 산업통계 국제권고안의 이행방안으로 UNIDO와의 협조하에 지역 역량구축 워크숍과 기본경제통계에 관한 지식기반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
- 위원회는 산업통계에 관한 UNSD의 향후 후속조치(산업생산 지수매뉴얼 개정 완료 포함) 인지
- 위원회는 위원국에 제기한 실행 상 우려를 고려할 것을 요청

⑩ 유통교역통계[E/CN.3/2008/10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 Introduction

- 국제상품교역통계에 대하여 테스크포스팀의 보고서가 37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이보고서는 각나라의 국제상품교역에 대한 편집과 레포팅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을 알렸음.
- 국제상품교역통계의 국가별 자료수집 및 배부사례에 대한 조사가 2006년도에 실시되었고, 이 조사는 현행 권고안의 개정과 추가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국제상품교역통계 권고안의 개정 필요

A. 개정 제안의 주요 요인

- 현행 국제상품교역통계는 1997년 제29차 통계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국제상품교역통계 : 개념과 정의』 등을 발행하여 국가적 통계능력을 제고하였음
- 제3차 국제상품교역통계 권고안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
 - 국제상품교역 방식의 변화
 - 법적환경의 변화
 - 관련 통계체계의 변화
 - 사용자 수요의 변화
 - 현재 일부 권고안의 명확화와 전반적인 Readability의 향상에 대한 요구

B. 개정이 필요한 주요 분야

- 범위의 개괄적인 정의
- 교역과정의 상품(분류)
- 원사업자와 자사업자의 사이에서 거래의 결과로서 교역되는 상품
- 교역 시스템
- 가치평가
- 교역 국가
- 데이터의 근원과 데이터 편집전략

- 데이터 질과 메타데이터
- 배분정책

□ 개정절차의 조직화를 위한 유엔통계처의 전략

- 2007년에 유엔통계처는 국제상품교역통계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의 개정을 위하여 다년도 전략을 수립함
 - (a) 현행 국가적 실행현황의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교역통계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획득
 - (b) 개정절차를 지원하는 국제상품교역통계 전문가 그룹 설립
 - (c) 개정권고안의 임시초안을 준비하고 2010년 3월 제41차 통계위원회에 검토와 승인을 위해 제출
 - (d) 2011년까지 국제상품교역통계의 편집에 대한 개정메뉴얼 준비
 - (e) 개정권고안에 따라 국제상품교역통계를 축적, 처리, 배부하기 위한 UN상품교역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2011)
 - (f)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활동 개시
- 이미 이전전략의 일부는 수행 됨
 - 국제상품교역통계 전문가그룹의 첫번째 미팅은 2007.12.3~6 개최
- 전문가 그룹의 결론과 테스크포스팀의 검토와 제안을 고려하여 유엔통계처는 2008. 5~6월 범세계적인 전문가회의의 첫번째 라운드를 위한 이슈리스트를 준비. 2008. 7~10월 통계처는 전문가회의의 썸머리 레포트를 준비할 것임. 2008. 11월 제3차 권고안의 첫번째 임시초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실제적 회의를 조직
- 2009년 3월 말까지 유엔통계처는 제3차 권고안의 첫번째 임시초안을 준비하고 2009. 4~5월 범세계적인 전문가회의 조직할 것임. 통계처는 2009년 8월 제3차 권고안의 두번째 임시초안을 마련하여 2009년 9월/10월 두번째 전문가미팅을 계획할 것임. 이후에 유엔통계처는 제3차 권고안의 마지막 초안을 2009년 12월 통계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것임
- 2010의 하반기 초에 유엔통계처는 제3차 권고안을 수행하는 나라를 돕고자 기술적 지원활동을 개시할 것임

□ 토론 포인트

- 유엔통계위원회의 바람
 - (a) 유엔통계처가 국제상품교역통계의 현재 권고안을 개정하도록 승인하고 2010년 제41차 통계위원회에 개정초안을 제출
 - (b) 개정권고안은 국제상품교역통계의 진보된 개념적 구조와 경제통계의 통합적 접근의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배부의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기를 유엔통계처에 권함
-

□ 국제상품교역통계 협의내용

- 위원회는 국제상품교역통계에 관한 현재의 권고안을 개정기 위한 유엔통계처의 이니셔티브와 전략을 지원하고 개정권고초안의 2010년 41차 위원회에 제출을 요청
- 위원회는 국제상품교역통계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판단조건에 관해 인식
- 위원회는 개정권고안이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시 경제통계에 관한 통합접근에 관한 지침과 개념상 프레임워크 제공을 요청
- 위원회는 개정권고안이 서비스국제교역통계, 국민계정시스템 및 국제수지통계에 관한 업데이트 권고안과 가능한 조화를 이루도록 요청
- 위원회는 권고안 개정시 자료수집 및 편집비용 최소화에 대한 우려반영 요청

⑪ 유통교역통계 [E/CN.3/2008/11 Report of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of the UNDP]

1. 서론

- Human Development Report와 인간발달지표(Human Development Index)는 제 31회(2000), 32회(2001)과 33회(2002) UN 통계위원회 회기에 논의되었음. 현재 보고서는 제 38회 UN 통계위원회에서 요청에 의한 것임.

2. 배경

- Human Development Reports(HDR)는 UNDP에 의해 수행된 독립된 보고서이며 선도적인 학자들, 발달 실무자,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HDRO)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산출물임. Human Development Reports는 1990년 이후 해마다 발간되었고 매년 인간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제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HDI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네 개의 Composite Index에 관한 것임.
- HDRO는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기존의 통계 측정치와 지표들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HDRO는 다른 UN기구나 국제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제적인 정의와 표준에 기초함.
- 인간발달보고서와 더불어 전체 60개국과 지역 인간발달보고서가 1992년 이후로 140개국에서 발간되고 있음.

3. 연구 설계 및 활동

- 인간발달보고서는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므로 표준화된 정의와 범위에 따라서 보고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이유로, 인간발달보고사무소는 주로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다른 UN 기구나 국제조직의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적으로 정의된 지표와 동등할 수는 없음.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유용하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제적 정의 사이의 변형이 투명해야 하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 Human Development Report의 총괄보고서를 만드는 데 대략 15-18개월 소요됨. 대략 6개월은 사용할 통계치나 지표들을 수합하고 분석하는데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역, 국제기구가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자료의 준거 시점과 보고서 출판 사이에는 대략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함. 이것은 급속한 속도로 교육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4. 자료 질 확보

- 32회 통계위원회에 논의된 의장단 조언에 따라서 인간발달보고사무소는 더 나은 자료와 분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적이고 공평한 통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통계적 이슈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함.
 - 전 세계의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를 통계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일 년에 1회 통계위원회와 만나며 필요할 때마다 글을 통해 자문을 제공함.
 - 통계 peer-review 위원회가 보고서의 개별 장들과 사무소에서 수행한 특정 분석을 검토함.
 - 연간보고서의 개발과 내용에 관하여 구성원 (UNDP 집행부)과의 비공식적 자문 과정을 도입함. 일 년에 5회 자문이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 1회기는 통계학자를 위해 할당함.

5. 국가별 현황과 자료의 간극

- 177개국이나 지역(전체 인구의 98%를 대표하는)은 현재 인간발달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 지수는 기본적인 인간발달에 관한 합성 측정치임. 최근 들어, HDI를 계산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17개의 UN 위원국들은 4개의 합성 지표 중에서 1개나 그 이상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결측 자료를 보고하는 국가들은 두 가지로 이유로 구분됨. 총인구가 10만명 미만의 작은 국가들이거나 최근에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임. 대부분의 경우, 추정하기 가장 어려운 지표는 인구당 GDP임. 주로 PPP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성인문해률에 관한 추정치가 없어서 결측 집단에 포함됨. HDI에 포함된 177국가와 지역에서 조차도 합성 지표사이에 간극이 존재함.

- 인간발달은 사회통계의 영역을 넘어서 가난, 인권리, 개인의 안전, 좋은 정부,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성의 영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더 많은, 더 좋은 통계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투입보다는 결과 변수나, 다양한 현상이나 정책이 개인, 가족, 가계의 삶이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변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 중 하나는 성차와 불평등에 관한 측정치임. 스웨덴으로부터의 기금을 활용하여 인간발달보고사무소는 2006년 두 가지 성과 관련 있는 합성 지표를 개관하였고 이후 더 나은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하였음.

□ **코멘트**(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센터 국제분석팀 박 종효)

- HDI는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지수이며 이 지수의 활용도와 유용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볼 때 지표의 신뢰도를 의심할 만큼, 자료나 지표 수합과 처리, 활용 과정은 여전히 투명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HDI의 지수 중에서 UNESCO 취학률과 OECD 취학률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성인문해율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어서 임의로 숫자가 할당되어 있음. 따라서 각 국가별로 HDI 개발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HDI와 함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지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가별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또한 국가 정책개발,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 지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삶의 측면을 보여주는 가치로운 국제 지표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인간개발통계 협의내용**

- 위원회는 개발이슈의 주요정보원으로서 인간개발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인간개발보고서에 공표된 자료와 지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환영. 특히 통계자문패널 구성, 그룹검토프로세스 도입 및 회원국과 정기 컨설팅 착수 등의 조치에 대해 환영
- 위원회는 인간개발보고서국이 인간개발보고서 준비과정에서 투명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강조. 특히 위원회는
 - 인간개발지표 계산에 사용된 통계에 대해 개별국가와 협의강화
 - 2006년 6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국제적 추정치 대신 국가자료 사용에 노력 경주
 - 개별국 통계청과 자료 및 지표에 대해 사전 품질점검 실시
 - 자료결핍 시 국제적 추정치의 활용은 관련국과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하여 처리
- 위원회는 CCSA의 통계교육소요와 역량평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 훈련기관에 관한 정보수집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
- 위원회는 UNSD와 세계은행에 훈련, 잠재훈련제공자 및 공여펀딩 목적과 정책 기술서를 포함한 펀딩 옵션의 필요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플랫폼 개발가능성 검토를 요청

⑫ UNSD의 통계자료수집 및 배부[E/CN.3/2008/12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statistics by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요약>

제38차 위원회의 요청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동 보고서는 자료수집 및 배부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통계처의 활동에 관한 것임. 유엔통계처에 의해 채택되어 추진되는 활동은 국제기구 자료수집 활동의 원활한 조정, 유엔 시스템의 용이한 접근, 자료배부 정책과 사례에 관하여 개도국 간에 경험을 보다 더 용이하게 교환하기 위함. 토론을 위한 요점은 IV에 있음

□ Introduction

- 동 보고서는 유엔통계처의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최근 개발사항을 간략하게 제공함

□ UNSD의 자료 프로그램

A. 자료수집(Data collection)

- 통계자료의 수집 및 배부를 위한 UNSD의 일반적인 임무는 UN설립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감. 2년마다 간행물 발간. 현재 UNSD는 각 국가로부터 조사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료 수집. 2008년도 조사표는 Annex 1에 수록. 웹사이트에도 있음.
- 유엔통계처 자료수집 관련 주기, 시의성, 지역적 범위, 응답율, 자료수집원, 자료공유 동의서, 자료수집 방법, 메타데이터, 자료처리 및 편집절차 등의 평가를 포함한 상세한 기술이 2003년 위원회 보고서(E/CN.3/2003/26)에 수록됨
- 최근 추가되거나 변경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06년부터 무역통계 자료
 - 전자통신 분야의 국민계정
 - 주택조사 질문지 송부
 - 2005 개정 유엔산업생산품 리스트에 기초한 산업 1차 상품 통계
 - 현존 품질절차에 기초한 자료의 질 프레임워크

B. 자료 배부(Data dissemination)

- 유엔 통계처의 자료배부는 인쇄물, 전자출력 및 인터넷으로 제공. 붙임 2 참조
-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유엔의 가격 정책과 공공재 통계 간에 딜레마가 존재함. 회원국들에 의해 제공된 자료는 유엔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 무료로 자료통합 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발 프로젝트가 착수됨.
- 유엔 자료 포털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되어 2007년에 테스트됨. 동 포털은

2008년 초에 제공될 예정.

□ Initiatives to support the global data flow

A. 수집 자료의 국제기구 간 조정

- 국제기구의 자료수집활동과 국가의 응답부담 문제는 오랜 관심사항임.
- 1990년에 자료목록 작성이 요청되었고, 목록에는 20여개 국제기구에서 400개 이상의 자료수집 활동이 이루어짐.
- 1997년에는 목록작성이 자료수집 툴로써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국제기구의 중복요청 자료에 대한 조사를 2002년에 실시하였는데 11개 국가에서 응답 함. UNSD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는 국제기구의 중복 자료수집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각 국가에 요청함.
- 최근 UNSD에 보고된 중복 사례가 없는 것을 볼 때 국제기구가 협력해왔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저역이 강조되고 UNSD에 중복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B. United Nations data portal as a tool for easy access to United Nations system data

- 유엔통계처의 데이터 포탈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데이터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설계되고, 초기에는 FAO, ILO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함.
- 2007. 11월 현재 유엔 데이터 포탈은 6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5천만 이상의 데이터 항목을 가지고 있음.
- 현재는 단순히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양한 자료원을 검색이 가능하여야 함.

C. Exchange of country experiences with respect to data dissemination

- 유엔통계처는 일년에 1~2번 정도의 자료배부 관련 지역세미나를 제공할 계획

□ Points for discussion

- 유엔통계처 자료수집 분야 검토
- UN 데이터 포털 구축 및 UN 시스템 파트너의 협력 촉진을 지지
- 중복 자료요청에 관한 국가의 관심을 촉진하여야 하는 유엔 통계처 임무의 재확인
- 새로운 자료배부 도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국가와 기관의 경험을 토론

□ UNSD의 통계수집 및 배포 협의내용

- 위원회는 자료수집에 관한 합의서등을 통해 개별 국가들의 보고부담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지속추진을 강조
- 위원회는 국제기구에 의한 중복자료요구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우려를 이슈화하는 조정자로서의 UNSD의 역할을 확인
- 위원회는 자료교환의 조화와 용이함을 가속화하는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CCSA의 적절한 도구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
- 위원회는 UNSD에 자료의 배포와 사용을 촉진키 위해 자료의 무상접근 격려
- 위원회는 UNSD가 배포정책 및 실행에 관하여 관련국가들간 경험공유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지속을 격려
- 위원회는 데이터 포털인 유엔포털의 개발을 축하하며 국제적, 지역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를 통한 잠재가능성의 충분한 발현을 위해 유엔포털 이니셔티브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

⑬ 자료 및 메타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공개기준

[E/CN.3/2008/13 Report of an initiative to foster open standards for the exchange and sharing of data and metadata]

I. 도입

1. 2001년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유럽중앙은행, Eurostat, 국제통화기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엔은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공유를 위한 더 효과적인 절차 개발을 합의

- 세계은행은 2003년에 초기 지원조직그룹에 가입

2. 이러한 시도의 목표는 국내와 국제기구가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기술의 사용을 통해 자료와 메타자료 교환분야에서의 업무 중복방지 표준과 지침 개발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sdmx.org) 참조

3. 유엔통계위원회에 2002년 제 33차 회의 기간중 최초보고서(BIS, 유럽중앙은행, Eurostat, 국제통화기금, OECD, 국제연합 통계분과와 세계은행의 공동 준비) 제출

- 2007년 보고서는 SDMX 기술 표준과 내용중심 지침은 여러 국가 및 국제 포럼에서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공유를 향상시키는 중심(focal point)이 됨

- 본 보고서는 SDMX활동을 검토하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SDMX의 승인에 요청 제안 포함

II. SDMX의 이점

4. SDMX의 내용 구성

- 기술적 표준(정보모델, 형태, 구성)

- 내용중심의 지침(통계 개념, 주제관련 부문 목록, 메타자료의 일반용어)

- 실행틀(자료/메타자료 구조 생성, 포맷의 전환, 자료입력과 등록)

5. SDMX의 장점

- 모든 영역의 통계에 적용 가능
-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제공의 효율성 향상 가능
- 통계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을 발전·유지 노력의 중복을 방지
- 잠재적으로는 통계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 가능

6. SDMX의 이점은 실질적이고 국내외 국제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통계자료 및 이미 메타자료 교환 시스템(SDMX)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과 프로젝트에 반영

7. OECD 통계위원회(CSTAT)는 통계정보의 국제적 교환과 공유를 위한 세계적 표준으로 SDMX 지지에 동의

- 통계위원회(STC)의 합의에 뒤이어 유럽중앙은행(ESCB)은 SDMX를 보급 활동에 사용해 왔고 각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간의 통계자료 공유에 사용된 유일한 표준임

III. SDMX 이행과 비용

8. 각국 통계기관은 이 표준과 지침의 적용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

9. SDMX기술 표준과 지침의 개발, 유지 및 보급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해 수행

- SDMX 결과물은 무료로 제약 없이 활용가능

10. SDMX의 최대장점은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이 자료/메타자료구조 정의와 개별 통계부문에 대한 코드 리스트와 같은 영역을 특정한 지침에 의해 보완할 때 달성

11. 통계정보 작성자와 이용자뿐만 아닌 국제 및 각국 통계기구들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SDMX를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존재

- 잠재적으로 전문가와 통계인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상당한 시간을 절약

12. SDMX의 적용은 우주대폭발과 IT시스템이나 코드 구조의 변화 불필요하고 기존 솔루션 개발 촉진을 위해 무료 툴(tool)을 이용하여 SDMX 표준에 맞게 수정 또는 기존 시스템에 인터페이스 마련 가능

13. SDMX 후원기관들은 2007년 초 국제기구와 각국의 SDMX의 이행상황과 그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개최

- 여러 사례연구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SDMX가 점차적으로 적용됨을 소개

14. SDMX 이행 비용은 다른 프로젝트에 묻혀 있고 그 결과 SDMX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실질적인 순비용 파악은 곤란

IV. 역량강화 지원

15. SDMX 후원 기관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증대에 기여

- 여러 기술적 매뉴얼과 사용자 지침을 사용자 위주의 SDMX 웹사이트에 게재(www.sdmx.org)

- 이 웹사이트에 무료 SDMX 실행 툴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타 공공부문 및 상업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기구를 대상으로 SDMX 관련 훈련 개최

16. SDMX 후원자들은 SDMX 이행이 촉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

- 2007년초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컨퍼런스와 워크숍의 개최

17. 만약 유엔 통계위원회가 통계자료와 메타자료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과 지침을 지지(foster)하는 SDMX의 성과를 인정한다면 많은 국가는 자료 교환과 공유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

V. 결론

18. SDMX 기술 표준과 내용 중심 지침은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과 공유를 향상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 줌
19. SDMX의 적용증가와 승인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이 시스템 사용 증가를 반영
20. OECD통계위원회는 SDMX를 자료와 메타자료 교환 표준으로 승인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SDMX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토의를 희망
2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장려를 희망
 - 각국과 국제기구가 SDMX의 발전에 대한 의견과 필요사항에 더 많은 참여 희망
 - 인식을 제고하고 통계생산자,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 공동체 내의 중복된 노력을 방지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한 SDMX 보급이 지속되기를 희망
 - 통계시스템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tool)과 일반적인 방법(approach)을 통해 자료와 메타자료의 교환의 기회를 늘리기를 희망
 -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가와 해당주제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그들이 SDMX와 어떻게 그 기술적인 표준과 내용중심의 지침 틀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계시스템을 축진을 목표로 하는 능력능진 프로그램을 장려를 희망

자료와 메타자료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보편적 표준 협의내용

- 위원회는 SDMX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주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스폰서의 리더쉽을 인식

- 위원회는 자료 및 메타자료 공유 및 교환의 표준으로 SDMX를 지지하였고 스폰서들의 본 이니셔티브의 지속적 추진을 요청하고 개별국가 및 국제통계조직 내 SDMX의 이행을 격려
- 위원회는 개별국가 및 국제통계기관들의 SDMX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 이들의 참여는 일개 영역을 넘는 분야에서 SDMX필요성을 제기할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스폰서기관과 협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 이러한 부분은 국제기구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보완해야 함
- 위원회는 역량구축, 세미나, 워크숍, 핸드북, 매뉴얼 준비를 통한 확장 및 연수 및 기술지원을 통한 이행지침의 중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SDMX 표준, 영역교차 가이드라인, 일개 영역에서의 활동, 이행, 도구 및 이벤트에 관한 정보의 중심축으로써 개선된 SDMX웹사이트의 활용 가능성을 환영
- 위원회는 SDMX스폰서가 자료 및 메타자료 교환통계시스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상활용가능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속적 추진을 요구
- 위원회는 SDMX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젝트 리스트를 명기

⑭ 아프리카 지역통계발전에 대한 아프리카경제위원회 보고서

[E/CN.3/2008/14 Report of the Economic Commissions for Africa on Reg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in Africa]

Summary

- 통계위원회 제38차 세션의 요구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본 보고서를 아프리카경제위원회에 전달함
- 본 보고서는 아프리카 통계능력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통계위원회 및 아프리카통계조정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이에 관한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
-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와 조직들의 통계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통계발전을 위한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기원함.

□ Introduction

- 지난 수십년간 아프리카 국민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준높은 통계에 대한 요구는 대폭 증대되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국가통계시스템(NSSs), 지역통계기구 등은 아프리카 발전에 있어서 통계와 국내·지역간·하부지역간·국가간 자원의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본 보고서는 통계발전 측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위한 최근의 발제(initiative)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이러한 발제에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노조위원회(AUC), 아프리카통계강화를 위한 지역전략계획(RRSF), 아프리카통계조정위원회(ASCC), 아프리카통계위원회(StatComAfrica), 아프리카통계발전심포지엄(ASSD) 등 아프리카 주요기구들의 통계관련 기능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음

□ 문제점

- 국제표준, 방법론, 분류에 관한 국제회의나 도시미팅에서의 저조한 참여문제
 - 결국 아프리카 스펙은 국제표준, 방법론, 통계분류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지 못함
- 통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부족
 - 국가별 정치발전도에 따라 통계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미비, 정부조직 내 통계청의 위상약화 및 그에 따른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
- 통계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 마라케슈(Marrakech)통계액션플랜(MAPS)에서는 전세계 모든 저개발국에 대해 2006년까지 국가통계발전전략(NSDS)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역량 부족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통계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편이며 교육기관들도 수요에 적합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계교육기관이나 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식통계나 통계실무관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프리카 국가비교프로그램(ICP-Africa)의 종료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비교프로그램(ICP-Africa)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은 경제통계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 GDP 관련 지수, 구매력지수 등에 도움을 주었는데 2006년에 종료되었음.
- 2010년 인구가구센서스(RPHC) 참여문제
 - 지난 2000년 인구가구센서스에서 17개국에 불참함으로써 아프리카 인구의 거의 50%에 달하는 인구와 가구가 조사에 누락됨으로써 아프리카 통계의 질적 저하를 초래. 2010년 센서스에서도 약 10개국에 참가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정의 문제
 - 아프리카 많은 국가에서 자료생산자와 이용자, 연구자간에 통계중복방지, 통계자료 수준 제고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정활동이 미흡한 수준.

□ 개선방향

- 정책결정자 등 자료 이용자에게 거시경제관리, 정책의사결정, 빈곤측정 및 감시 등에 있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가 통계생산 및 이용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자, 민간이용자의 변화하는 니드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할 필요.
- 그리고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능한 이용자그룹 양성, 통계청의 조사관리능력 배양, 통계기관간 조정활동 증진 등이 필요함.

□ 주요 이니셔티브

① 주요 지역기구내 통계기능의 재편

- 2006년 8월 아프리카통계센터(ACS)에 통계과가 재신설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진일보한 요구사항에 있어서 통계가 핵심적이라는 인식의 결과이며 다른 지역기구들도 통계활동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재편은 통계국 신설을 통해 극대화되었는데 통계국은 경제사회통계를 담당하는 과와 통계역량배양·기술지원을 담당하는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노조위원회(AUC)도 최근 경제국에 통계과를 신설하였음.

② 마라케슈(Marrakech)통계액션플랜(MAPS)

- 통계발전을 위해 2004년 모로코 마라케슈에서 승인된 마라케슈통계액션플랜(MAPS)은 1) 통계발전국가전략(NSDS)을 통한 통계시스템 기획, 2) 2010 세계인구센서스 준비, 3)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증대, 4) 국제기구조사망 구축, 5) MDG감시체계 개선, 6) 국제통계시스템의 책임성 증대 등 6개 주요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RSF를 실행전략으로 삼고있음

③ 아프리카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들(RRSF)

- 아프리카개발은행, World Bank 등 주요 후원자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지휘하에 본 전략들을 추진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는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틀로서 2006년 2월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계청장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07년 4월에는 아프리카 재정부장관 회담에서도 승인되었음

④ 통계발전국가전략(NSDS)

- MAPS에 따르면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은 2006년말까지 통계발전국가전략을 수립토록 요청하였으며, 본 전략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원칙에따라 추진된다면 NSDS는 통계기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수 있으며 국가별 통계자원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음

⑤ 아프리카통계발전심포지엄(ASSD)

- 본 심포지엄은 아프리카 국가들간에 통계발전에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개별국가가 주도하는 통계발전 발제로서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포럼이 개최됨.
- 주제는 지속발전가능한 통계시스템, 통계능력발전에 저해되는 문제해결, 아프리카 국가간 실무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며 1차회의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둘째회의는 르완다의 키갈리, 세 번째회의는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음.

⑥ 아프리카 국제비교프로그램(ICP-Africa)

- 2002년부터 추진된 52개 전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괄하는 대륙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간 물가지수 비교, 화폐구매지수 등을 포함하여 신뢰성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능력배양이 주목적임.

⑦ 아프리카 통계위원회(StatCom-Africa)

-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의 통계과 재신설에 따른 보조기구로서 아프리카통계위원회의 신설이 2007년 4월 CoM회의에서 승인되었음

⑧ 아프리카 통계정관(the African Charter for Statistics)

- RRSF는 지력통계발전에 있어 아프리카노조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노조위원회는 아프리카 통계정관을 수립하고 이 정관은 2008년 1월 아프리카 재정부장관 및 국가정상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노조회의에서 승인될 것임.

⑨ 아프리카통계조정위원회

- 2007년 9월 AfDB, UNECA, AUC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 튀니지 회의에서 아프리카 통계활동조정을 위해 통계조정위원회가 설치하기로 결정됨.

⑩ 기타 이슈

- 참고로 매년 11월 18일을 아프리카 통계의 날로 정해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있으며 아프리카통계저널도 발행하고 있음

□ 아프리카 통계센터 설립

- 통계센터 설립은 양성평등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계획의 달성과 보다 나은 경제관리를 위한 통계능력을 배양하는 데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통계센터는 1) 2010년 인구가구 센서스 대비 프로그램, 2) 새로운 기법의 가구조사 방법, 3) 국제기준에 적합한 경제통계, 4) 통계교육실시, 5) 통계개발활동의 조정, 6) 통계자료 관리 등 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위원회의 주요활동

- RRSF(아프리카통계강화를 위한 지역전략계획)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통계발전을 위한 준거틀로 공인하였음.
-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발전을 위해 통계에 좀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청함.

- 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국가통계발전전략(NSDS)를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파트너들에게는 NSDS의 수립과 집행에 협력하여 줄것을 요청함.
- 개발파트너들에게 각국의 2010년 인구가구센서스에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아프리카통계위원회, 아프리카통계조정위원회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것을 요청하였음.

□ 아프리카지역 통계개발 협의내용

- 위원회는 아프리카통계센터의 설립을 통한 통계활동 주요관심분야 선정에 만족을 표시
- 보고서 25문단에 명시된 아프리카통계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나타낼 목적으로 제기한 권고안에 대한 지지표명
- 위원회는 아프리카통계위원회 개최를 축하하며 아프리카대륙에서 통계관련 최고기구임을 인정
- 위원회는 아프리카 통계조정을 위한 다양한 기관의 설립,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관련 타 지역에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인지
-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위해 제시한 내 신뢰할 만한 통계생산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요청
- 위원회는 다양한 기관에 의한 통계역량 구축사업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감사하며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⑮ 보건통계[E/CN.3/2008/15 Repor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Health Statistics]

□ 코멘트(인구동향과)

한국통계청은 출생, 사망, 사망원인 및 생명표를 포함한 인구동태통계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분야에서 국제적인 일치와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유엔 및 국가통계기관들과 함께 인구동태통계의 표준화된 개념, 모범사례, 분류 및 방법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ISWG-HS 회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향후 개최되는 회의가 있으면 한국통계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표 협의내용

- 위원회는 보건통계와 프레임워크 개발제안과 조정을 증진키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를 표명

⑯ 개발지표 협의내용

- 위원회는 지표측정수준에 관해 몇몇 회원국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차기위원회에 개정 보고서 제출을 요구
- 위원회는 2006.6월 통계역량구축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재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지표생산 국가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좀더 비중을 둘 것을 IAEG에 요청

- 위원회는 IAEG에 국가들의 통계역량구축 권고안 개발과 제40차 위원회에 제출을 요청
- 위원회는 IAEG 및 관련기구들이 기술적, 방법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MDG 지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
- 위원회는 연간보고서에 제출된 MDG지표 활용가능성 평가를 환영하며 IAEG에 자료 활용가능성과 개별 국가차원과 국제자료의 차이에 관한 심층분석을 제 40차 위원회 제출 요구
- 위원회는 MDG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들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기관이 국가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감안 각국들의 통계발전을 지원토록 요청

⑰ 제40차 위원회 의제 및 일정 협의내용

- 일정제안 : 2009. 2. 24 ~ 2. 27(4일간)
- 주요의제
 - 프로그램 검토 :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 인구 및 사회통계(인구주택총조사, 보건·교육·사회·이민·고용통계 등)
 - 경제통계(국민계정, 농업·에너지·ICT·물가통계 등)
 - 자연자원 및 환경통계
 - 분야가 규정되지 않은 활동

4. 제3차 세계포럼 개최관련 OECD와 실무협의

- 일시 및 장소 : '08.2.28 11:00 참가자 라운지
- 참석 : 우리청 대표단, OECD 통계처장(엔리코 지오바니니)외 3명
- 주요 협의내용
 - OECD측은 3차 포럼개최와 관련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시. 우리측은 3차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측에서 지원요청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포럼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유엔대표부 대사면담시 지원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OECD총장이 공식적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참석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표부대사 입장을 전달
 - 제3차 세계포럼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말 추진에 이견이 없으나, OECD측은 반기문 사무총장 참여가능 일정을 우선으로 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OECD 사무총장이 3월경 반기문 총장을 만날 때 참가요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체적 행사일정을 이른 시일 내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개최도시와 관련 OECD는 서울이외의 지역의 교통문제 등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후보도시들과의 인접성, 연계교통의 편리성 등을 강조 서울이외의 지역개최 시에도 컨벤션센터 등 시설과 환경 등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 우리 측은 또한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신정부출범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까지 개최도시 선정이 마무리 되도록 할 것임을 OECD측에 고지
 - OECD측은 제3차 세계포럼에 OECD통계위원회 2차회의(1일)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고, 우리 또한 동회의가 유럽국가의 세계포럼 참석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지지
 - 또한 세계포럼관련 지역별 사전회의 개최의 필요성, 소규모 전문가그룹구성을 통한 자문단 운영, 세계포럼관련 우리 청 직원과견, 지역 통계협력구심점으로서 UNESCAP의 역할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
 - 양측의 회의준비 관련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OECD 통계처장 등의 고위실무급

과 서명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하고 서명 시기는 OECD통계위 개최시기에 추진논

5. OECD의장단 회의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08. 2. 28(목) 14:30 - 18:30, UNSD빌딩
- 참석 : OECD통계위원회 위원국 및 당연직 국제기구 대표 등
 -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urostat, EU, World Bank, IMF
- 주요협의내용
 - 향후 2년간 OECD 통계전략 : OECD가 비유럽국가와의 연계강화 필요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유럽연합국가와 이외 국가간 정보공유를 통한 조율된 정책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BRICs등의 국가로 참가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
 - OECD 통계처와 타 정책 부서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시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통계청장들의 심적 부담을 덜기위한 회의방법(화상회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일년에 1~2회 진행되는 회의이고 서로 간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연례 미팅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함.
 - 대부분 의장단국은 통계위원회가 글로벌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만 수행하고 정치적인 부분(MDG와의 관계, UN의 협력 등)에 대해선 업무영역을 벗어나므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정리

[회의참고자료]

I. OECD의장단 위원국 선출

- 위원국 임기 : 2년(2년연장 가능)
- 현 위원국 : 9개국
 - ☞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의장국, 부의장국이 회원국과 협의 위원국 명단제출 : '08. 2회의 시

II. 통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OECD통계위원회 활동시한은 2008년 말로 규정. OECD는 모든 위원회의 활

동시한 연장 시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위원회 근거규정 개정 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

- 현재 통계위원회 근거규정 검토는 '08. 10월 회의에서 추진예정이며, 6월미팅에서 이사회에 제출될 초안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규정개정 절차는 '06년 재조정.
- 근거규정 개정 앞서 통계위원회는 하부기관의 적정성 검토필요. 즉 하부기관 의장단은 2009-2011년 사업방향과 그간 추진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보고서는 5월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함
- 통계위원회 근거규정 4조에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통계위원회는 2008. 12.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음.

III. 2009-2010 OECD 통계전략

□ OECD의 연결기능 강화(Bridge role)

-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간의 연결기능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잠재신입회원국과 협의 : '08-'09년 5개 후보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의 특징을 평가
 - 주요 비회원국가와의 관계강화(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인도, 남아공(설득필요), 인도네시아(접촉필요)
 -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간 조율 : 서로 다른 국제적 기준 및 적용의 위험감소
 - 국내데이터의 실질적 활용 : 일국 내 자료부족으로 비교가능 통계개발 애로 시 국제적 접근이 의미 있을 수 있음. 따라서, OECD와 국가통계기관 간 밀접한 협의 필요

□ 통계처와 타 위원회와의 관계구축

- 통계위원회와 특정통계활동을 수행하는 타 정책부서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위원회의 존재자체가 통계처장의 역할강화에 기여
- 연례통계위원회 회의기간이 충분치 않아 타 정책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에 애로. 의제별 할당시간이 충분치 않아 타 관련위원회 관계자 초청이 지난. 따라서, 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중요 통계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법이 필요.
- 두 번째 통계위원회 개최가 효과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통계위원회 회

기연장, 통계위원회와 타 위원회 의장단간 긴급미팅, 통계위원회 의장단의 정책위원회 회의참여

□ OECD통계의 품질향상

- OECD통계 품질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의 적용
 - 관심을 두어야할 분야중 하나는 데이터배포 정책.
(PISA2006배포시 실수방지)
 - 배포스케줄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통계처는 접근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엄격한 절차설립 제안이 필요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리포팅 & 발표에 관한 핸드북”은 통계의 해독가능성 향상의 척도.
 - 유엔통계위의 최근 결정사항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교환의 기준으로 SDMX의 사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새로운 방법론과 데이터 확충

- 사무총장제안 우선순위를 보면, 글로벌화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필요
- 세계화통계 검토, 세계화통계관련 단일 자료저장소 구축, 세계화측정에 관한 OECD 핸드북 개선, 세계화 지표에 관한 자료 개선을 의미
- OECD는 사회의 발전을 측정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함. 이스탄불선언의 실행을 위해선 글로벌프로젝트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워킹그룹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관한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또한 프로젝트는 주기적으로 통계위원회에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OECD가 직면하고 있는 통계이슈

- 글로벌 지식창출자로서의 OECD의 역할강화
 - OECD통계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 필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주요요소의 타 국제기관의 적용은 새로운 기회제공
 - 글로벌정보사회에서 활용가능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을 요구. 이것이 통계인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중 하나이며 OECD는 새로운 접근법의 실험에 중요한 역할 수행(베스트프랙티스 규명, 글로벌 공공재 생산에 기여)

- 향후 2년간 취할 주요 액션으로는, 통계포탈의 개선, 외부사용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웹 2.0의 도입, 혁신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도입
- 배포도구에 추가 투자
 - ⇒ 따라서, 2006년에 위원회에서 수립된 통계배포에 관한 예산은 2009-2010에도 지속되어야 함
- 통계의 이해도증진
 - 통계는 우리사회를 이해하는 근본적 도구. 고급의 통계는 현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주요도구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문화 강화에 기여

IV. 6월미팅 주요의제에 대한 기대

□ OECD의 확장 및 적극적 협력활동

- 글로벌이슈에 대한 토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OECD장관급회의에서 조직의 확장과 주요 비회원국과 적극적 협력전략 채택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
- 5개국이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가입전 OECD에서 채택된 실질적인 법제도의 채택요구. 가입절차에서 일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OECD법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검토. 이는 OECD회원국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가입절차 관련 비용은 후보국 부담
- OECD내 기관의 공식의견과 사무국의 검토안이 나오면, 사무총장은 이사회 제출준비
- 통계위원회 역할
 - 후보국들의 통계관련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OECD기준과의 합치성 검토
 - 후보국의 데이터의 품질 및 비교가능성 검토
 - OECD의 리포팅 및 정보시스템과의 통합가능성 검토(회원가입시)
 - 통계의 접근가능성 및 품질을 평가를 내포하는 타 정책분야에서 비슷한 검토를 수행할 타 기구와의 협조방법도 중요한 과제
 - 따라서, 위원회는 2009년 말 각국 상황 평가보고를 위한 로드맵 필요
- 평가수행시 중요원칙
 - 시간이 촉박하므로 효율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 후보국가와 파트너쉽 정신을 발휘하여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최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국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OECD회

원국과 후보국에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와 협력,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잘 짜여진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

- 후보국마다 전략 및 실행계획, 평가보고서 제출될 예정.
- 추진일정
 - 가입절차 시작 : 2008.2 - 4
 - 실행계획 준비 : 2008.2 - 3
 - 계획의 실행 : 2008.4 - 2009.8
 - 초안 평가보고서 협의 : 2009.7 - 8
 - 5개국 평가보고서 협의 : 2009.10
 - 평가보고서 완료 : 2009.11
- 의사결정 : 본 제안에 대한 의장국의 검토와 승인필요. 본 제안이 승인되면 통계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상정될 예정

V. SNA의 실행

- '06, '07 국민계정에 관한 OECD실무자미팅에서 1993 SNA개정판 실행에 관해 협의된 바 있음. 대부분의 회원국은 업데이트된 SNA를 2012년과 2014년사이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향후 OECD는 1993SNA 또는 업데이트된 SNA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 업데이트된 SNA데이터 제공국가의 경우 주요 숫자에 업데이트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회의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음.
- ISWGNA(사무국산하 국민계정 실무단)는 광범위하게 개정SNA에 대해 고지.
- ISWGNA회원국은 개정SNA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 핸드북의 발간을 추진

VII. OECD통계의 배포

- 2006.12월 OECD이사회는 OECD발간프로그램과 2007-2008 통계배포 프로젝트를 승인
- 이사회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통계결과물은 3종류의 서비스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 즉 OECD Facts and Figures, OECD Core Data, OECD Statistics.
- 추진되어온 일들을 보면, 2가지 데이터베이스 론칭, 베타버전의 OECD.stat

서비스 시작(2007.12.4), OECD.stat브라우저의 디자인 개편, 온라인 FactBook 2008에 활용성을 높인 그래프 제공

- 또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모든 OECD통계데이터에 취합 및 품질보증, 온라인 통계결과물 창출, Pub.Stat의 지속적 보완, 통계포탈의 재디자인, 자료공포일정 발표, 보다많은 자료의 OECD.Stat로 전송요청, 새로운 서비스 도입, 새로운 혁신적 커뮤니케이션 도구 실험, Statlink의 확장 등
- 6월미팅에서 아래 사안에 대해 통계위원회 의견표출 필요
 - 글로벌 지식창출자로서 OECD역할 강화를 위한 전반적 전략
 - 통계자료 배포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예산지원 및 2008년 이후 새로운 배포전략관련 예산확보
 - 새로운 통계제품 및 서비스 개발

VIII. OECD통계국 주요업무 및 사회발전측정 프로젝트

- 통계위원회는 통계국의 주요업무 관장하고 있고, 2008년에 사무국은 2009-2010 주요업무 및 예산관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 주요전략방향에 맞춰 사무국에서 6월미팅에 제출할 초안 프로그램 준비예정
 -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커멘트 가능(미팅시 또는 서면)
 - 미팅후 사무국에서 커멘트를 취합, 조정한 후 사무총장에게 제출
 - 이사회 승인후(2008.12) 사무국에서 공지예정(변동분 포함)
- 글로벌프로젝트관련 업무도 통계국 주요업무에 포함될 예정. 이사회는 2008.9월까지 글로벌프로젝트의 설립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

IX. OECD의 혁신전략 : 통계의 역할

- OECD혁신전략에서 통계역할은 현존 통계자원의 최대 활용과 주요 투자분야 규명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 혁신전략은 국제통계분야에서의 OECD의 리더쉽을 강화하고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의 기회를 제공.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OECD통계정보시스템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OECD통계정보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 과학기술산업국과 통계국이 자본축적과 산업별 TFP 추정자료 준비에 협력기로 함. 이 데이터는 OECD STAN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질 것임.

- 마이크로데이터는 경제분석에 중요한 요소. 그러나 현재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소스에 접근이나 비교가능성에 대한 국제간 조정역할 미흡. 특히 혁신분석에 있어서 기업차원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중요하므로 혁신전략은 그 분야의 기초 인프라구축의 기회가 될 것임.
-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OECD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EIP)은 기업의 실적과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아직까지 비 기술적 혁신 측정을 위한 통계적 프레임워크는 없는 상태. 지식경제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혁신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함.
- 기대결과
 - OECD혁신전략에 있어서 통계가 주요역할에 대해 통계위원회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얻어내는 것
 - 향후 생산성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 관점을 도출
 - 마이크로데이터 센터설립에 대한 지지와 방향수립
 - OECD EIP에 각국의 참여증대와 지지
 - 혁신의 비 기술적 관점에 대한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전략적 아이디어 수립

6. 글로벌프로젝트 파트너기관회의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08. 2. 29(금) 13:00 - 16:30, UNDP빌딩
- 주관 : OECD 통계처(글로벌 프로젝트팀)
- 참석 : 글로벌프로젝트 협력기관(세계은행, UNDP등 11개기관)

참석인사 : Shaida Badiie(world bank), Pieter Everaers(Eurostat), Pedro Conceicao(UNDP), Steve Killelea, Michel Mouyelo-katoula(AfDB), Eduardo Lora(IADB), Giovanni Savio(UNESCWA), Pietro Gennari(UNESCAP), Ben Kiregyera(UNECA), Nicolas Pron(UNICEF), Adreas Siegel(council of Europe)

- 주요 협의내용
 - 현재 글로벌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및 사회발전 측정방법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함
 - 글로벌프로젝트는 선진국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프로젝트의 제목(title)에 관한 논의도 진행. 글로벌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회발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의 영역을 포괄하기에 그에 적합한 제목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음.
 - 글로벌프로젝트의 미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제기. 글로벌프로젝트가 단일한 사회발전측정법 및 새롭고 독창적인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각국의 통계기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일부에선 글로벌프로젝트이 목표가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글로벌프로젝트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 글로벌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조직구성을 유연히 설계하는 것이 유용하며 OECD와 파트너기관이 프로젝트에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
 - 현재의 조직구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
- ※ 글로벌사무국(프로젝트전반관리), 프로젝트위원회(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조정자 및 작업반(각 지역프로젝트 수행), 주제별작업팀(프로젝트 특정이슈 연구)

-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포럼에 관한 논의에서 제3차 세계포럼은 2차포럼보다 더욱 일관성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고 포럼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논의
- 글로벌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로고등을 포함한 브랜드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협의
- 차기회의는 금년 9월 튀니스(튀니지 수도)에서 개최되는 유엔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와 연계하여 개최기로 함
- 이밖에 OECD통계처장과 OECD와 공동연구사업 수행가능성을 타진하여 OECD 통계처장이 바람직하다는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한국 대표단(김해수 차장) 발언요지

- 비록 글로벌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OECD사무총장인 엔겔 구리아 씨가 말한바와 같이 세계포럼은 공공기관, 비즈니스 및 NGO등에서 대규모의 다양한 리더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가 될 것임
- 특히, 정부, 국제기구, 통계기관, 기업, 학계 및 연구계, 언론 및 NGO등에서 1,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통계와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할 것임
- 통계청은 이미 관련부처와 세계포럼의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 현재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이 진행 중이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5월까지의 행사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월까지의 3차 한국 세계포럼의 초대장을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정부는 세계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며 특히 저명인사를 발표자와 참석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7. 유엔과의 공동연구관련 협의

『UN과의 공동연구관련 실무협의』

- 일 시 : '08. 2. 25(월), 2. 28(목)
- 관계자 : 유엔측(프렌체스카, 데니스, 장 미셸)
- 주요내용
 -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나, 통계제도연구 회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5월 또는 6월 회의 개최의 어려움을 표시
 - 인구의 등록센서스기법 연구와 관련, 캐시 월만(미국)과 협의하여 미국 ACS 담당국장을 섭외키로 하고, 장미셸(UN측)과는 프랑스관련 자료를 받기로 협의

『UN과 공동연구 관련 고위급 회의』

- 일 시 : '08. 2. 27(수) 18:00
- 장 소 : UNSD 유엔통계처장 사무실
- 면담인사 : 폴청 유엔통계처장
- 주요내용
 - Paul Cheung과 Dennis Trewin은 현재 2008년도 개최 확정된 다른 국제회의 회의일정을 고려하여 11월경에 '기후변화 한국회의'를 제안하였고,
 - 주제는 당면통계현안을 주제로 하고, 이때 통계제도비교연구(2007년도 사업) 결과도 회의주제 포함할 것을 논의하여 잠정합의
 - 한편 Paul Cheung은 동 공동연구사업은 통계청과 UN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며 특히 국제회의시 많은 국가(30~40개 국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한국의 지원기준이 같아야 함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예산집행절차를 확인 후 2008년도 논의 사항을 진행키로 함

『행정자료 이용 통계회의관련 섭외』

- 일 시 : '08. 2. 26(화) ~ 2. 29(금)
- 주요내용

- 기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과 접촉하였고, 향후 개별접촉을 통한 참가자 확정 추진예정
- 독일, 네덜란드가 매우 우호적으로 참가 검토를 약속

8. 기타 국제협력활동

-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양자협력국과 금년도 양자협력 추진 일정 및 주제에 관한 협의
- UNSIAP소장 Davasuren과 SIAP훈련과정 및 SIAP의 중장기 계획(2010~2014)과 관련 우리청의 지원요청에 대해 초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전달